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종보

2005년 8월 1일 월요일 제70호

**이 달의 종조법설**

인간은 불신을 받을 때처럼 무가치하고 불유쾌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불신은 자기가 초래한 것이지 상대방의 탓도 아니다. 신임을 받는 것도 자신에게 있다. 정직과 성실은 불신을 몰아내고 인간의 신임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신임까지 받는다.

발행인 : 우승 편집인 : 김용주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경로효친의 자비행 실천"

## 총지종, 어르신 위한 경로법회




제5회 경로법회에서 총지종 교도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끝없는 세월 속에서 도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수마보다 더한 것이 없다. 열두 시각 어느 때나 또렷또렷하게 의심을 일으켜서 어둡지 않도록 하고, 행주좌와 어디에서나 항상 끊임없이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살펴보아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것 같으면 만겁이 지나도록 한이 될 것이다. 무상이 찰나 속에 있으니 날마다 놀랍고 두려운 일뿐이요, 사람의 목숨은 잠깐 사이인지라 한때라도 보장되어 있지 않느니라, 어찌 도를 닦는데 있어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총지종은 어르신들에게 경로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동안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유스호스텔에서 경로법회를 봉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로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메말라가는 가족사랑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불교의 신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로법회는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며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야외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은 경로법회에 즈음하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고유한 예절이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는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받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종단도 어르신들을 봉양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 다방면으로 방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네가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신은 절대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부처님의 제행무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증득하시어 이러한 네가지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위대한 진리를 다른 중생들에게 포교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불법의 진리를 체득하여 해탈을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법회는 8월 30일 오후4시 충남 아산시 도고 유스호스텔에서 입재식으로 시작하여 31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과 열린우리당 문희상의장이 서로 상견례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 "참회와 자비심 구현"

### 총지종 하반기49일불공 회향

총지종은 지난 5월 28일 입재하여 국가진호불공과 선망부모 영가천도로 진행된 하반기 49일불공 회향법회를 7월 15일 봉행하였다.

이날 회향법회는 전국 사원별로 선망부모 영가천도와 국가진호와 호국안민, 각 개인의 해탈을 기원하는 불공을 올렸다.

하반기 49일불공 회향법회에 즈음하여 효강 종령예하는 "하반기 49일 불공동안 용맹정진해 주신 전국 스승님과 교도분들에게 불공 공덕과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늘 가득하시기를 서원하오며,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참 진리를 체득하는 종교로, 깨달음이란 청정한 계율과 수행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업장을 참회와 자비심으로 소멸하여 윤회고의 해탈을 이루어야 하며, 자신이 지은 인은 반드시 과를 받는다는 인과법을 굳게 믿고 각자 청정한 수행을 겸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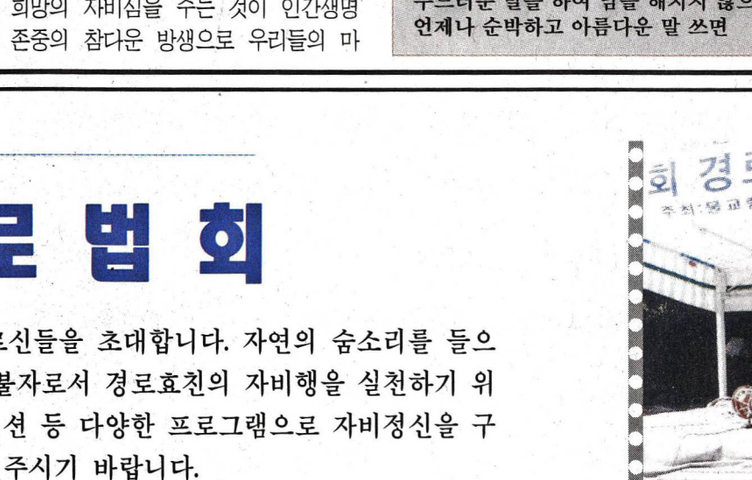
# "방생으로 모든 죄업장 소멸"

## 방생법회 원만회향

"위없는 진리를 깨달으시어 일체중생의 귀의처가 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지혜의 광명을 드리우사 불퇴전의 용맹정진으로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영원불변의 진리인 불법으로 제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서원한 공덕을 낱낱이 베풀어 주시어 가정마다 건강하고 평안하여 복덕이 넘쳐나서 나날이 기쁘고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방생법회가 7월 16일 전국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부산,경남교구는 충북 제천 의림지에서, 대구,경북교구는 합천군 합천댐 용문정에서, 그 외 사원은 각 사원별로 자체적으로 방생법회를 봉행하였다. 특히 충북 체전에서 열린 부산경남교구 방생법회는 어류방생 개식사, 헌화 및 훈향정공, 유가삼밀, 봉행사, 축사, 반야심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 부산,경남교구장(대원)은 봉행사에서 "제천의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와 더불어 삼한시대부터 존재한 유명한 저수지로 이러한 유서깊은 곳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하며, 방생 자비행을 통해 모든 보살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서원하며, 서로간에 분별심을 버리고 나와 너는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간직하여 각자 부처님의 정법을 받들어 굳은 신심으로 참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 지회장(신인록)은 축사에서 "방생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만 공덕이 아니라 마음을 크게 열고 보면 바로 우리들 이웃에 훌륭한 방생의 복전이 널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 희망의 자비심을 주는 것이 인간생명 존중의 참다운 방생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차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대비심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부산경남교구 방생법회에서 교도들이 방생자비행의 실천으로 업장소멸을 발원하고 있다.

총지캠페인

##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1910년 나라가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되고 그해 12월 혹한의 추위 속에서 60여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여섯 아들 건영, 석영, 철영, 회영, 시영 호영 형제들이었다. 그중 넷째인 우당(友堂) 이회영(李會榮 · 1867~1932)이 형제의 동의를 얻어 내린 결단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중국으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이회영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백사(白沙)이항복의 11세 후손이다. 이회영의 집안은 이항복부터 10대동안 계속해서 재상을 배출한 명문가로서 10명 중 6명은 영의정을 지냈고 1명은 좌의정을 지냈다. 당시 명문가로 추앙받던 많은 지배계급층들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방하는데 협조했고 그 공로로 일본으로부터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76명이나 되었고 일본에서 받은 돈도 오늘날 화폐 수백억원에 달했다. 나라와 운명을 같이해야 할 많은 지도계급층들이 나라를 팔아넘긴 댓가로 호의호식할 때 이회영은 조선에서 10대를 재상의 벼슬한 가문으로서 풍전등화의 국운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고 판단하여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40만원, 요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00억원 이상 되는 큰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최초의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10년 동안이나 3500 여명의 독립운동에 필요한 인재를 키웠다.

44세에 만주로 건너가 66세에 생을 마감할 때 까지 그들은 끼니를 먹는 날 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하니 본인이나 가족의 고생은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냥 우리나라에 머물렀으면 자손대대로 부귀를 누릴 만큼 많은 재산과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서의 명예와 존경을 받고 살았을 그가 자신은 물론이며 가족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주로 떠난 것은 아마도 한국적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기 위한 최고의 명문가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과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회 지도층 계급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 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이회영 형제들이 내렸던 결정은 오늘날 현대사회의 지도계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더 이상 방송이나 신문에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뉴스는 없었으면 한다.

**죽비소리**

이간질하는 말을 끊어 버리어
남의 친우를 이간질하지 않고
항상 피차를 화해시키기를 생각하면
이것이 곧 천상에 나는 길이다.

상냥하지 않은 말을 아주 버리고
부드러운 말을 하여 남을 해치지 않으며
언제나 순박하고 아름다운 말 쓰면
이것이 곧 천상에 나는 길이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말하지 말라
아무의미 없으면 이롭지 않다
언제나 법의 말을 따라 말하면
이것이 곧 천상에 나는 길이다.

『법원주림』중에서



제6회 불교총지종

# 경 로 법 회

제6회 총지종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초대합니다. 자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의 정법을 깨달아 참 불자로서 경로효친의 자비행을 실천하기 위해 장기자랑, 야외법회,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비정신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수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제6회 경로법회
◆ 참가대상 : 65세이상 어르신
◆ 일 시 : 총기34년 8월 30일 ~ 8월 31일
◆ 장 소 : 도고 유스호스텔(충남 아산시 도고면)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 자원봉사자 모집 : 경로법회에 어르신들을 봉양할 자원봉사자를 각 사원별로 1명씩 모집합니다.

불 교 총 지 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 사설

## 미래의 꿈나무 자성학교를 살리자

총지종에서는 어린이 불자들을 위한 자성 학교가 종단의 무관심과 종단의 인적자원 부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어린이, 청소년 수련법회를 시행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지만 행사 후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단은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성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성학교와 어린이 포교는 당장에는 포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불교에서 말한 인연법의 원리에 따라 언젠가는 다시 불교에 입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린와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각 사원에는 자성학교를 개설해 놓고 있지만 전국 사원 가운데 어린이 자성학교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사원뿐, 그나마 어린이 학교의 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원은 한 두곳 밖에 없다. 불교계에서 총지종은 나름대로 종단적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고 있고 이른바 5대 종단 안에 든다는 종단이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밀교의 특성상 차원 높은 교리와 사상체계를 어린이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성학교의 운영이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것은 미래의 불교를 이끌어 갈 어린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어린 불자 양성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절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조계종에서는 평일에도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뜻있는 스님들에 의해 어린이 법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종단은 투명한 운영체계와 통리원 중심의 집중적인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만 있다면 어느 종단 못지않은 훌륭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저성학교를 유명무실하게 방치함으로써 총지종의 어린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종단, 다른 종교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성장기에 한 번 뿌리내린 종교관은 자라면서도 좀체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온갖 사탕발림으로 어린이 포교에 열성적이었던 결과 우리의 안목에서는 비상식적인 종교관이 한 번 주입 되고 나면 성장 후에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폐를 무수히 보아왔다. 성인 대상의 교화에만 열중한 나머지 어린이 포교를 등한시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불자들이 가르침의 기회를 잃고 자칫 외도의 무리에 휩쓸려 일생을 무명 속에서 살다가는 불행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자성학교의 적극적인 운영이 요청된다.

조계종 한 사찰에서 시행된 어린이 수련법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종교가 같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종교는 천차만별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주관한 한 스님은 "이렇게 인연 고리를 만들어 놓아야 나중에 아이들이 이 인연을 따라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고 했다. 한 번 인연을 맺어 놓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야 아이들의 발길을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불교로 돌아온다는 뜻이었다. 불자 양성에도 먼 장래를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종단의 역량으로 보아 미래의 불자 양성에 힘을 쏟을 충분한 인력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교세를 축소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주위의 여건만을 탓 할 수는 없다. 하루 빨리 자성학교를 부활하여 타종교, 타 종단에 발길을 돌리는 어린이들을 우선 자성학교로 흡수해야 한다. 급한 대로 「단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성학교 자체를 활성화하고 자성학교 활성화의 저해 요인과 전국 사원 스승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어린이 포교 및 프로그램 연구위원회」같은 기구를 발족하여 장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자연과 함께한 신심수련"

## 총지종 여름학생수련법회 원만회향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에서 학생들이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총지종 여름학생 수련법회가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 100여명, 청소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령청소년 수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회향하였다.

수련법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서해안 앞바다에서 갯벌 조개잡기, 소금으로 맛잡기등 갯벌체험, 아트풍선 만들기와 총지생활요가센터 이한상선생 지도로 생활요가, 둘째 날은 아침 일찍 기상하여 아침정송을 시작으로 석탄박물관 견학, 성주사지답사 및 산행으로 호연지기의 기상을 체험하고, 대천해수욕장에서 발야구 및 비치발리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바다에서 신나는 놀이로 한 여름의 정취를 체험하고, 저녁에는 수련법회의 극치인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를 통해 수련법회에 참석한 학생들간의 우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날에는 아침정송과 감사의 편지쓰기, 회향식으로 수련법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은 여름학생 수련법회에서 "대자연과 호흡하며 배우는 그 모든 것이 보람있게 보내는 일이며, 이 수련법회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에 밑거름이 되고, 남보다 먼저 앞장서서 선행을 행하고 끈기가 부족한 사람은 끈기를 길러야 할 것이고, 화를 잘 냈던 사람은 넓은 마음 갖기로 더욱 노력해야 하고, 남을 많이 미워했던 사람은 따뜻한 마음 갖기를 꾸준히 노력토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자기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지난 6일 부산불교방송에서 종단 수련법회와 관련하여 'FM 89.9 좋은 인연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리원 사무국장 법경 정사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 불교지도자, 열린우리당 간담회

## 템플스테이와 불교발전을 위한 방안제안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불자의원, 불교계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초청,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불교지도자 오찬 간담회가 7월 13일 낮 12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각 불교종단 총무원장스님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이타회 불자의원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법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과 요구, 바람 등에 귀를 기울여 이러한 요구들을 법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국민들이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특히 여당은 주인의식을 갖고 혼돈과 갈등의 사회에 국민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인사말에서 "세계속의 한국불교의 영향력이 넓어지고 불국정토를 위해 한국불교계가 용맹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큰스님들이 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문화의 저력을 높이기 위해 템플스테이 등 최고의 문화 프로그램을 세계에 널리 알려 문화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열린우리당에 자연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허용, 징용자 유골반환, 역사시험문제, 템플스테이 발전방안 등을 건의했다.

**알림방**

☞ 제6회 경로법회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됩니다.
☞ 시무교육이 8월1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정각사에서 실시됩니다.

대법고

# 주5일근무제 사회변화와 종교활동

언제나 사회는 현재를 격변기, 또는 격동의 시대라고 말한다. 특히 인간의 역사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숨가쁜 변화의 시기가 계속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0세기 말기부터 시작된 새롭고 중대한 변화의 기점위에 서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이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 전체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에 새로운 동인은 주5일 근무제로 기업체의 회사원과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는 먼저 현대인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은 직장에 매달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러다 보니 집은 하숙집이요, 가정은 뒷전이었으며, 여가와 문화생활은 꿈꾸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로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가정,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게 만든다.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도 즐기며 사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이 곧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은 다시 문화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진다. 한국인의 미덕인 근면성실의 인간상을 추구하는 가치는 이제 휴식과 여가를 중시하는 가치체계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조직보다는 자기자신, 가족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변화한다. 죽도록 일만하는 사람이 칭송되던 가치체계는 이제 일보다 가족, 적당한 휴식과 자기계발이 더 중시되는 가치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가치변화와 더불어 주5일 근무제로 여가와 레저산업이 육성되고, 그에 필요한 상품과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여행이나 스포츠, 취미활동 또는 생애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호텔산업이나 항공, 자동차, 또는 레저, 특히 문화나 교육산업에 폭발적인 인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주 5일 근무제로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종교활동과 포교방법, 수행프로그램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대부분의 사찰들이 경치좋은 산사와 관광지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인해 여가문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포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템플스테이와 주말 산사체험, 산사음악회, 가족법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기독교계와 천주교는 7~8년 전부터 주5일 근무제로 시민들이 여가를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함에 따라 주말에는 도시공동화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하여 각종 세미나와 연구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활동을 비롯해 연구활동과 모델교회 개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요일에 시행하는 예배를 탈피하여 주간 저녁에 예배시간 배정, 주말에는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한 가족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에서는 '가정사목', '문화사목', '관광사목'으로 주 5일근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정사목은 가족과 가정을 중심으로 가족피정, 부부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문화사목은 문화를 수단으로 신도들에게 선교는 물론 그리스도교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관광사목은 강원도 평창과 대천 등 주요 관광지 인근 본당과 도시의 본당을 연계하여 관광지에서 여가를 보내는 신도들이 관광지 인근 본당에서 예배를 볼 수 있고, 신도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각 종교단체들은 신도들을 포교하기 위해 법회와 예배시간의 탄력적 운영, 도시와 관광지의 연계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총지종도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법회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족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용주/총지종보사


#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2005년 6월 28일부터 2005년 7월 21일까지

| | | | | | | | | | | | |
|---|---|---|---|---|---|---|---|---|---|---|---|
| 개천사 | 이희권 | 10,000 | 밀인사 | 신대식 | 5,000 | 수인사 | 김봉기 | 10,000 | 정각사 | 조현필 | 5,000 |
| 개천사 | 김영헌 | 20,000 | 밀인사 | 이혜성 | 5,000 | 수인사 | 한애숙 | 20,000 | 정각사 | 최순분 | 10,000 |
| 개천사 | 무명씨 | 5,000 | 밀인사 | 신동희 | 5,000 | 실보사 | 송희준 | 10,000 | 정각사 | 정희연 | 10,000 |
| 관성사 | 김병석 | 10,000 | 밀인사 | 신동의 | 5,000 | 실보사 | 송희준 | 10,000 | 정각사 | 남숙자 | 20,000 |
| 단음사 | 이규성 | 3,000 | 밀인사 | 이재호 | 10,000 | 실지사 | 박병성 | 5,000 | 정각사 | 황영숙 | 10,000 |
| 덕화사 | 하순옥 | 5,000 | 백월사 | 유승태 | 5,000 | 실지사 | 정우석 | 10,000 | 정각사 | 이수임 | 5,000 |
| 만보사 | 박선희 | 10,000 | 백월사 | 박삼순 | 20,000 | 운천사 | 이상용 | 20,000 | 정각사 | 이란이 | 10,000 |
| 만보사 | 배정임 | 10,000 | 백월사 | 차노병 | 10,000 | 운천사 | 오주화 | 10,000 | 정각사 | 김정자 | 10,000 |
| 만보사 | 김희순 | 10,000 | 법천사 | 신상각 | 50,000 | 운천사 | 이상용 | 20,000 | 정각사 | 박말연 | 5,000 |
| 밀인사 | 허을순 | 10,000 | 벽룡사 | 원 당 | 50,000 | 자석사 | 우바이 | 70,000 | 정각사 | 구정희 | 20,000 |
| 밀인사 | 정정희 | 5,000 | 벽룡사 | 오기순 | 10,000 | 정각사 | 윤선자 | 10,000 | 정각사 | 김문수 | 10,000 |
| 밀인사 | 이연수 | 10,000 | 성화사 | 우담바라 | 100,000 | 정각사 | 김점남 | 10,000 | 정각사 | 박훈휘 | 10,000 |
| 밀인사 | 이재호 | 10,000 | 수인사 | 한애숙 | 20,000 | 정각사 | 신옥필 | 5,000 | 정심사 | 박옥란 | 10,000 |
| 정심사 | 오윤보 | 5,000 | | | | | | | | | |
| 총지사 | 이인성 | 20,000 | | | | | | | | | |
| 혜정사 | 정길오 | 5,000 | | | | | | | | | |
| 혜정사 | 김완식 | 10,000 | | | | | | | | | |
| 화음사 | 강순란 | 5,000 | | | | | | | | | |
| | 무명씨 | 10,000 | | | | | | | | | |
| | 진관사 | 5,000 | | | | | | | | | |
| | 최순전 | 20,000 | | | | | | | | | |
| | 이화수 | 5,000 | | | | | | | | | |
| | 진관사 | 10,000 | | | | | | | | |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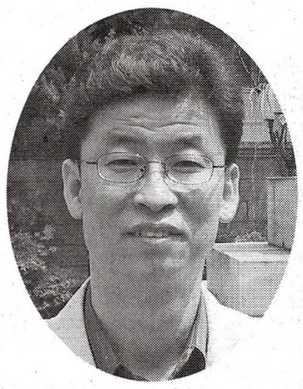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총지칼럼

# 2,000년대의 문화적 환경과 불교



김 종 인

▲(현) 총지종 법장원 연구원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현) 불교평론 편집위원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부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한국 갤럽이 2005년 3월 1일에 발표한 "200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은 새 천년의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84년에는 43.8%이던 종교 인구가 2004년 말에는 53.5%로 증가하여 종교 인구가 비종교 인구 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80년대 이후 급속히 물질지상주의 내지는 세속주의로 치달려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종교 인구의 증가는 의아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왜 종교를 믿는가?" 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67.9%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라고 대답했으며, "죽은 다음 영원한 삶을 위해"라고 답한 사람은 7.8%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종교 인구의 증가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된다.

대부분의 종교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도그마일 뿐이다. 현실 속에서는 종교적 진리 역시 하나의 상대적 진리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진리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문화 현상이다. 그리고 이 문화 현상은 언제나 사회의 여타 문화적 환경과 더불어 변모할 수밖에 없다.

종교문화는 여타의 문화적 현상들에 비해 훨씬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다른 문화 현상들과 지속적인 괴리를 일으키면서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럴 경우 그 종교는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결국에는 그 종교 자체가 다른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면서 전파하고자 한 원래 가치의 확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존립조차 유지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만다.

"전생," "천국," "지옥," "영생," "하나님," "연화장 세계" 같은 종교적 개념들은 과학과 학문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실제로 존재하는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개념들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있는 종교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화와 설화적 세계에 있는 문학적 의미의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7.8%는 여전히 "전생," "천국," "지옥," "영생," "하나님," "연화장 세계" 등이 실재하는 것으로 믿고 있지만, 나머지 절대다수는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 더욱이 불교 신자의 경우는 단 1.8%의 사람들만이 이러한 세계를 실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영원 절대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다. 사람들의 종교관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세속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한국인들은 들은 매우 이해 타산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정신적 가치와 결부된 행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정신적 가치와 결부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과학적 타당성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현실적 결과물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한국인들은 정신적인 가치와 결부된 행위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가치들과 결부된 행위들에 대한 판단 기준과 동일한 판단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한국인들의 종교관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영혼과 결부된 종교적 도그마에 본인 스스로 사로잡혀 있거나, 이러한 도그마에 의지해서 신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상당수 종교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종교관의 변화가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신행심의 약화처럼 보이는 이러한 종교관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교의 원래 가르침과도 잘 상통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의 세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평화 이상의 경지이지만, 그 분 역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심이 깊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들은 무엇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을 것이요, 승직자들을 숭앙하며 그 도력에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일기도, 천일기도에 열중하지도 않을 것이며, 많은 희사금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에게서 산중의 사찰은 조용한 휴양지와 다를 것이 없으며, 시내의 법당은 셀프 서비스로 운영되는 조용한 까페와 다를 것이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석존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보고 확인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신행생활을 해나가려 하고 있다.

한국 불교는 사람들의 변화된 종교관에 맞는 전도를 해야 한다. 간절한 기복적 염원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

이들 양자는 서로 성격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전자의 경우는 깊은 신심은 있으나 지혜가 부족하고 어두운 사람들인 반면에, 후자는 지혜롭기는 하나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역설이 있다. 단순한 논리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고, 신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신심을 부여해 주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 불교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것은 불교 신도들이 신심의 깊이를 더할 것을 강조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굳건한 믿음 이전에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약한 신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한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갈 할 것이다.

믿음을 앞세우다 보면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말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다가가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다가가야 한다.

## 이달의 설법문안

# 억울함을 가슴속에 두지 말라

## 연기론적 자비관으로 서로 살리는 삶

세상의 온갖 풍파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중생의 삶이란 늘 화창한 날들 같이 밝고 기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맑은 날들보다 바람 불고 춥고 비오고 눈 내리고 흐린 날들이 더 많듯이 우리네 삶에도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낼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일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참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자신이 모함 당하거나 취급당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변명할 여지도 없이, 그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없이 오해를 받고 온갖 함정에 빠져 아무리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증명해도, 그 덫에서 빠져 나오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생트집을 잡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였는데 혼자만 잘못을 뒤집어 쓸 때나, 믿고 주고 받았는데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상관이 '책임을 진다'고 하여 내키지 않은 일을 마지못해 하였는데 혼자서 문책을 당할 때 등등

이렇듯 큰 억울함, 작은 억울함,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 남으로부터 받게 된 억울함을 가질 것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느껴지면 그 즉시 속이 답답해지고 원통함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치거나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이해가 되면 억울함을 가슴에 묻지 않지만, 억울함이 용인되지 않고 풀 길이 없으면 홧병을 부르며, 그 원한을 깊이 품고 죽게 되면 원귀가 되거나 환생을 해서라도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함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요소입니다. 억울함이 사무치면 홧병을 부르고 그 홧병을 풀지 않고 죽으면 원한이 맺혀 풀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되어 생을 바꾸더라도 그 원결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맺힌 원결이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선 우리들이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남에게 원한에 사무칠 만큼 큰 억울함이나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지지 않는 원한은 생을 바꾸어서라도 꼭 풀게 마련이므로 남에게 원결을 쌓아서 결코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한을 가지고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그 원한의 관계는 결코 풀어지지 않고 세세생생에 원수가 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원한의 관계를 푸는 길은 자비로운 용서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억울함이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억울함이 풀리기는 커녕 더욱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을 당하면 가능하다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떠나 여행을 하거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밝히려 하다가 보면 다시 시비가 일고, 그 시비는 분노와 증오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원망하는 마음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초라도 빨리 생각도 몸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이 상책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불교의 원리적 이상은 자비입니다. 자비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慈)와 중생의 괴로움을 제거하는 비(悲)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비정신은 악을 악이라 배격하고 벌하던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바위에 부딪쳐도 끝없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도 본래 실체가 없어서 선의 결여에 지나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이며, 나아가 어떤 악인도 진여에서 나온 여래장을 지니고 있어서 부처님과 평등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동체대비가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아야 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란 말이 기독교의 종교적 이상인 사랑과 다른 점은 어떤 경우에도 중생을 버리는 일이 없고 따라서 증오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해도 이를 끝내 거역하고 배반하였을 때는 죽음이라는 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판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조물주를 전제하는 이상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와 인생의 모든 것을 인과와 연기의 전제로 보며, 인과를 벗어난 우연론이나 전지전능한 창조주에 의한 창조론은 모두 이단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다 우연히 생겨난 세계라거나, 또 전지전능한 신이 이 우주의 생명체를 창조했다면 이 세계는 모순으로 가득 채워지고 약육강식의 대혼란 속에서 암흑과 죄악만이 판을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설사 잠깐의 실수로 잘못 창조하고 잘못 관리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즉시 다시 개조하고 재창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가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주와 인생의 신비는 오직 불교의 육도윤회를 통해 무시이래로 인과법, 연기법으로 풀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인과를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으로 보면 모든 것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와 함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불교의 인과론과 전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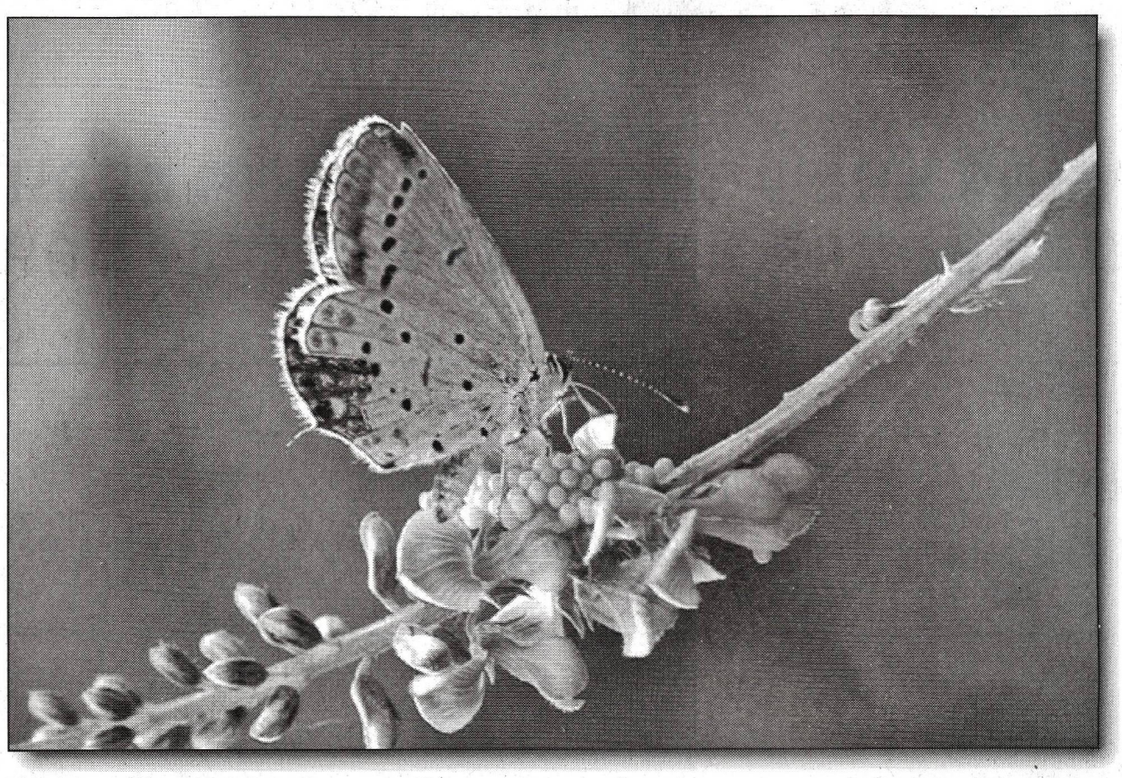
불교의 인과론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현재와 같은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고 있는 이 결과는 어제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고, 오늘 내가 짓는 행위는 내일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의 인과론은 내일을 창조하고 오늘의 과오와 고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인과론이기 때문에 숙명적인 운명론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하는 세속적, 현실적 법의 태도입니다. 대부분 중생의 생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세세생생 원수가 되어 윤회의 고뇌를 끊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남도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왕삼매론」은 서로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연기론적 자비관으로 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과 눈은 훈훈한 봄바람이 아니면 녹일 수 없듯이, 자비가 아니고서는 중생의 무명업장을 녹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차원에 이르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남을 비방하고 탓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인욕바라밀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흔히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고통이 심하단 말인가' 하고 탄식하는데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그 잘못의 원인을 돌리는 정신입니다. 대부분의 억울함을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실컷 잘해 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지고 자존심이 깊이 상하게 됩니다. 혹 아직도 이런 생각에서 사로잡혀서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로 삶을 보내시고 있으시다면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거의 원망과 원통함에 사로 잡혀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비관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얼마든지 바꾸고 전환 할 수 있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원한. 원망. 억울함 따위는 먼지 털듯이 바람에 훨훨 날려 보내고, 흘러가는 세월의 강물에 던져 버립시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총지종보사의 작은 몸짓이
총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멈 / 추 / 지 / 않 / 는 / 사 / 람 / 들 / 총 / 지 / 종 / 보 / 사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㉙

#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보공양(寶供養)'

지난 호에서는 관음원의 '연화군다리(蓮華軍荼利), 만공양(鬘供養)'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보공양(寶供養)'에 대해서 살펴본다.

##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

연화부사자(蓮華部使者)에는 3종류의 사자가 있다. 하나는 연화(蓮華)를 가득 담은 금강반(金剛盤)을 들고 있는 연화부사자이고, 둘은 3명의 사자로 중앙의 사자가 연화(蓮華)와 칼을 들고 있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미개부연화(未開部蓮華)를 들고 있는 사자이다.

첫 번째 연화부사자는 범어로 Padmakulaceti라 하는데,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천의(天衣)를 착용하고 연화(蓮華)를 가득 담은 금강반을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릎을 꿇어 앉은 자세로 왼쪽 무릎을 세우고 연화대(蓮華臺)에 올라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연화부사자-1



연화부사자-3



연화부사자-2



보공양

이 연화부사자의 밀호(密號)는 없고 삼매야형(三昧耶形)은 금강반상(金剛盤上)의 연화(蓮華)이며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은 앞의 다라사자(多羅使者)와 같은 '나막 사만다 보다남 지 시리 캄 보람 사바하'이다. 뜻은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자(智者)여! 길상(吉祥)인 자여! 함 브람 사바하!'이다.

두 번째 연화부사자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범어로 Padmaceti라고 한다. 존형(尊形)은 모두 육색(肉色)으로 중앙의 사자는 왼손에 연화를, 오른손에는 검(劍)을 들고 있고, 양쪽의 사자는 합장을 하고 있다. 각각 연화대 위에 올라 무릎을 꿇고 올라 있는 모습이다. 해당하는 밀호는 없고, 삼매야형은 연화검(蓮華劍)이다. 연꽃 위에 검을 세워 올려 놓은 형태이다. 인상은 마찬가지로 연화합장이다. 진언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

세 번째 연화부사자는 범어로 Duti라고 하는 사자로, '남녀관계를 중재하는 여성의 사자'를 의미한다. 존형(尊形)은 육색(肉色)으로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왼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허리에 대고 왼손은 세운 무릎에 대고 완전히 피지 않은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밀호는 없다. 삼매야형은 미개연화(未開蓮華)이며 인상(印相)은 연화합장이다. 진언은 앞의 사자와 동일하다.

## 보공양(寶供養)

보공양(寶供養)은 여의륜보살(如意輪菩薩)의 사자(使者)로서, '보주(寶珠)'를 의미한다. 보주(寶珠)는 어떠한 소원이라도 충족시키는 것을 상징한다. 이 사자의 존형은 육색(肉色)으로 연화대 위에 무릎을 꿇고 양손에 보주(寶珠)를 담은 금강반(金剛盤)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머리는 천으로 묶은 모습이다. 밀호(密號)는 공봉금강(供奉金剛)이다. 공양을 올리는 금강존(金剛尊)이라는 뜻이다. 삼매야형은 금강반 위의 보주로 표현된다. 인상(印相)은 보공양(寶供養)의 인(印)이다. 양손을 합장하되 손가락 끝을 서로 마주하여 깍지를 끼고 손바닥은 허공처럼 벌린 손모양이다.

진언은 '옴 아보갸호쟈마니 한드마바지레이 다카갸타비로키데이 삼만다하라사라 훔'이다. 뜻은 '옴! 허무하지 않은 공양보주를 갖춘 자여! 연화와 금강을 지닌 자여! 여래의 관찰을 하는 자여! 널리 행하거라! 훔!'이다.

이 진언은 밀교의 기본 수법인 '십팔도(十八道)'에 있어서 행하는 광대불공마니공양의 보공양진언으로, 이 진언을 외우며 공양을 올리면 보주(寶珠)가 모든 소원을 충족시키므로 그 공양의 효험은 아주 크다고 한다.

〈자료정리 : 통리원 교정부〉

생활속의 밀교

# 현재의 '내'가 중요합니다.



법경정사
〈사무국장/연구원〉

▶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행운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매일 매일이 행운의 날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듯이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내일이 되고 어제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어 반드시 자신과 모두에게 이롭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올바른 노력이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헛되이 보낸 어제의 모습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자신이 한 모든 행위가 내일 다시 발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지금 자신 앞에 닥친 순간 순간들을 알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가장 심오하며 도전할만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입니다.

현재의 순간은 우리의 스승으로써, 우리를 어떠한 판단도 없고, 어떠한 비난도 없으며, 어떠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가 없는 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현재의 순간은 거울로서, 그것이 반사하여 보여주는 것에서 우리는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이 거울 안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 거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자신의 삶에서 혼란과 불일치를 일으키고, 무엇이 조화와 이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 고통과 그것의 원인과의 관계를 보며, 사랑과 그 근원의 연결관계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서로 연결하고, 무엇이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 그래서 현재의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일체가 없습니다. 일체는 내가 있으므로 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설하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남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귀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며, 어제의 '내', 미래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의 '내'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 나의 앞날은 여러 면으로 달리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지위든 명예이든 나를 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선지식이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나는 진정한 수행자가 되고, 참불자가 되며, 참 진언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는 현명한 사람인가?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 나는 넉넉한 사람인가?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하여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 나는 강한 사람인가?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입니다.

◊ 나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인가?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 나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가장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 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인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늘 일하는 사람이며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 나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 수행은 바로 이와같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행의 궁극은 깨달음에 있고, 무명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를 얻는 것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선 당장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언연송은 곧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두고 끊임없이 정진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언수행의 길

### 강도발원 및 강도희사

강도(講度)란 한자풀이로는 '법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하는 뜻이나, 우리 종단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안정을 위하거나 종단 내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공공에 반하는 일 등이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고 선한 방향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욱 크고 넓고 깊는 법을 세워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창안하신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에는 공양받은 것을 다시 공양 올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즉 희사받은 것을 대중들을 위하여 다시 베푼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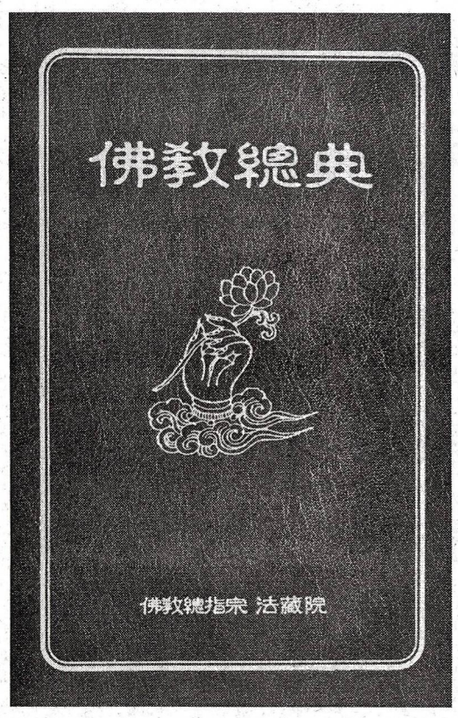
스승님들이 공공(公共)을 위해 원을 세우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것을 강도발원이라 하고, 그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희사하는 것을 강도희사라 한다.

대개 강도희사는 우리 스승님들이 국가와 나라, 공공의 안녕, 종단과 교도를 위하여 정진불공을 하며 특별히 행하는 희사이다.

정송(正誦)과 함께 서원정진을 하며 교도를 위한 불공,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즉 국가와 종단, 그리고 교도가정을 위해서, 천도불공을 비롯하여 각종 불공의식을 할 때, 국가와 사회에 위난이 발생했을 때, 교도가정에 중요하고 긴급한 서원이나 재난, 고통이 발생했을 때 주로 행한다.


#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기획특집 총기 34년 방생법회 이모저모

#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자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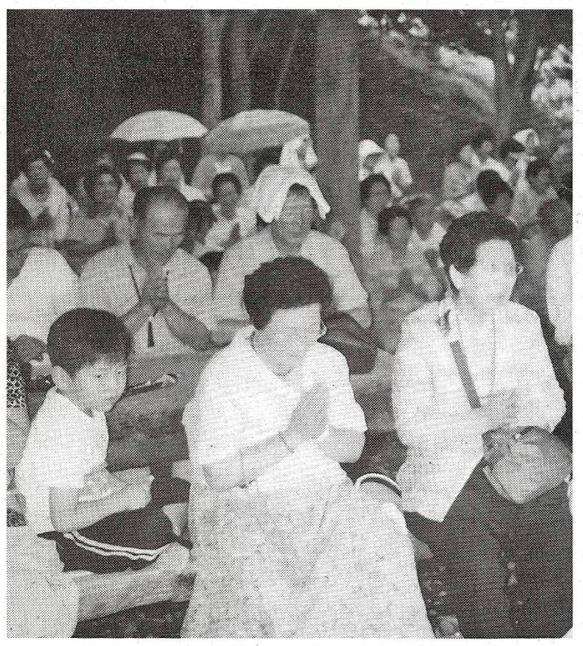
## 방생법회 종령법어



효강
〈총지종 종령〉

전 교도가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하게 회향하고 각 교구별로 방생대법회를 통하여 자비심을 기르고 교도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을 보고 흐뭇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방생법회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불자들이 행하는 불교만의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주로 어류 방생을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지만 방생은 반드시 어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갇혀 있는 생류들이 다 방생의 대상이 됩니다. 자기의 삶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타인에 의하여 자유를 억압받는 모든 것들이 다 방생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진정한 방생의 대상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 인간들도 탐·진·치의 굴레에 묶여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갖 어류들보다도 먼저 방생되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잡힌 고기를 사다가 물에 놓아 주는 것도 큰 자비심의 발로이기는 하지만 방생이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경제적 질곡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 탐·진·치의 굴레에 묶인 우리 자신들을 방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합시다.



◇대구경북교구 어류방생

## 방생법회 인사말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

하반기 49일 불공을 원만히 회향하시고, 오늘 이 '방생대법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보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하반기49일 불공기간 동안 퇴전함이 없이 모두가 용맹정진하여 주신 성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광명경』을 보면 '무릇 살생을 경계하는 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의 으뜸이요, 죽어가는 목숨을 놓아주어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함이다. 모든 무리가 삶을 즐겨하지 않음이 없고 꼬물거리는 미물도 모두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니 어찌 슬픈 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죽일 수 있으리요? 또 피를 가진 동물은 반드시 지각이 있으며 이 지각은 곧 불성이므로 어찌 오늘의 천한 바가 다른 날에 존귀했었다고 할 수 없겠는가? 그러므로 경계에서는 중생과 부처의 구별이 없고 평등한 본성 가운데에는 나와 남의 구별이 없건만 중생들은 망녕된 생각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능히 돌이킬 줄 모르니 슬프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생이란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발현하여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고 살생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육도윤회로부터 해탈케 하고 불교의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살생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죽게 된 생명을 구해냄으로써 보다 넓은 의미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며,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할 의무로 자비심을 통해 모든 죽어가는 생물을 살리는 행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생대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방생하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베푸는 넉넉한 마음,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널리 은혜를 베풀어서 중생심의 밑바닥에까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간탐심을 보리심으로 바꾸어서 이웃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해탈케하는 행을 실천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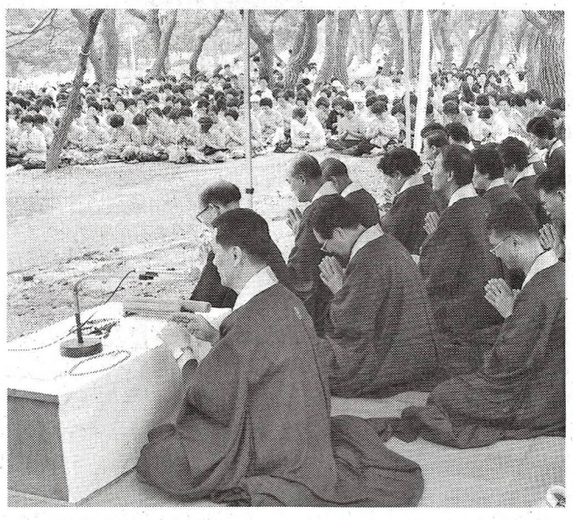
우리 진언행자들은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겨자씨 만한 도움이라도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함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어온 모든 업장이 소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생대법회를 통해, 나의 나쁜 버릇과 마음은 강물 속으로 멀리 멀리 던져버리고,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자비의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길이 길이 가꾸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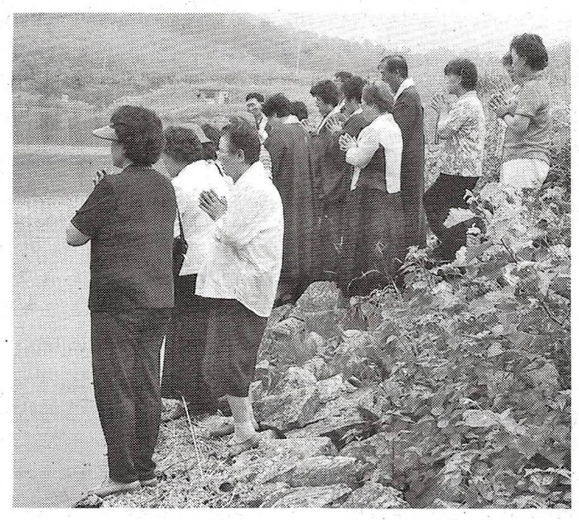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생법회에 동참해주신 여러 스승님들과 보살님들의 정진원력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보살님들의 가정에 방생공덕이 가득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대구경북교구 방생법회



◇부산경남교구 방생법회



◇부산경남교구 어류방생

## 방생법회 축사



신인록
〈부산경남지회 지회장〉

오늘 부산·경남교구에서 주관하는 에이팩 성공기원 및 해탈절 방생 대법회에 동참하여 이렇게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각 사원 스승님을 비롯하여 각자님 그리고 보살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9일 동안 진호국가불공과 더불어 선망부모 조상영식을 위해 왕생극락을 서원하는 참회·서원불공을 마치고 오늘 방생법회를 통해 회향을 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보살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방생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것만 공덕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크게 열고 보면 바로 우리들 이웃에 훌륭한 방생의 복전이 널려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고에 시달리는 이에게 희망의 자비심을 주는 것이 인간생명 존중의 참다운 방생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불교 신행단체에서도 어류방생을 지양하고 인간방생을 많이 권장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산하 각 사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공을 해서 해탈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 최종 성불의 목표인 만큼 이 길에 한 걸음 한걸음 다가서는 방편이 있다면 그 길로 나아 가야합니다.

부산·경남 보살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하여 산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내 몸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의 고귀함과 모든 생명의 평등함을 일깨워주신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방생법회를 통하여 가정 가정마다 서원하신 공덕은 낱낱이 이뤄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차별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대비심으로 가득 채워 다같이 해탈하는 길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방생은 고기의 자유를 위한 방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자유를 위한 방생입니다.

방생법회 동참하신 각사원 스승님 그리고 각자님, 보살님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합시다.








여성美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 경 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붕루증, 자궁선근종, 요실금…
- 임 신 병 : 불임, 임신오저(입덧), 임신중독증 등…
- 산 후 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기능성좌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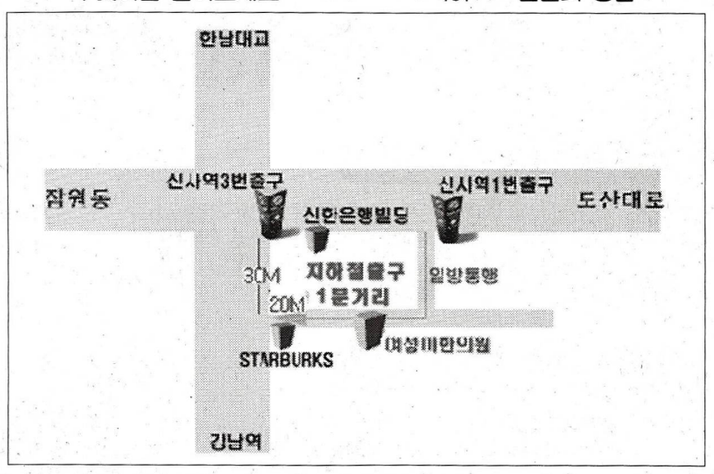
◆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주 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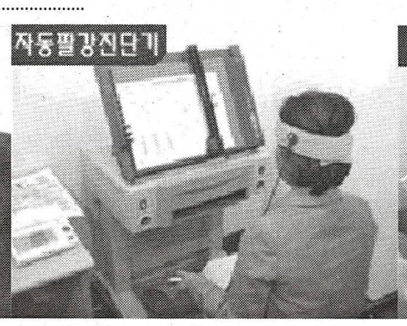


육아TV "전문의 상담"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 풍경소리

### 침묵하신 부처님

어떤 바라문녀가 함지박을 옷 속에 숨기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대는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의복과 식량을 주지도 않고 걱정조차 않는가? 그대는 철면피처럼 남들을 속이고 거짓을 보이고 있는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많은 바라문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이 맞군, 맞아. 이제야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았어』

그러나 부처님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저 담담하였다.

부정도 긍정도 않는 부처님은 다만 자신의 불리함 앞에서도 침묵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거짓이 탄로나고 모든 바라문들이 엎드려 사죄하였으나 부처님은 별로 기뻐하는 빛도 보이지 않았다.

불쌍한 중생들이 자신의 결백을 알리는 데는 한없이 조급하다. 어떤 말을 듣더라도 분노를 삭혀 마치 깨어진 종처럼 침묵한다면 그대의 평온은 지켜지리니, 이는 곧 열반에 이름과 같은 것이다.

### 좁은 시야

어떤 한 스님이 조주화상에 아뢰기를

『소승이 일찍이 듣자오니 이 동네 돌다리가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막상 직접 보니 그저 보잘것 없는 외나무다리로군요』

조주화상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보잘것 없는 외나무다리만 보고 어찌하여 돌다리는 보지 못하느냐?』

이에 그 스님이

『스님! 그러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돌다리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화상이 말하기를

『응, 그건 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너고 그 다리를 건너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수고로운 다리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을 뿐, 그 진정한 가치는 알아보지 못한다. 소승이 말한 그 좋은 다리라는 것은 물질과 외형에만 치우쳐 평가되었던 것이다.

### 용기

무예와 용맹에 뛰어난 어느 선사가 호젓한 길을 가다가 그만 산적들에게 에워싸이고 말았다. 그러나 이 선사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떠들지 않고 순순히 가진 것들을 모두 건네주고 속바지바람으로 흘연히 걷던 길을 계속 걸었다.

그런데 도중에 다시 되돌아왔다.

『속바지 속에 노자를 나누어 둔 것을 깜박 잊고 그냥 갔구려!』

선사는 얼마간의 돈을 내놓았다.

이에 도적들은 크게 놀라며 두려움을 느껴 슬며시 뒷걸음쳐 달아나고 말았다.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욕심을 두지 않고 전부를 털어 버릴 수 있는 마음은 진정한 용기이다. 자신을 해코자 하는 우매한 중생까지도 측은지심으로 거둘 수 있는 마음 또한 진정한 자비심인 것이다.

### 믿음은 손과 같다

믿음은 손과 같다고 한다. 사람에겐 손이 있어야 보물의 산에 들어갔어도, 자유롭게 보물을 채취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와 같이 불법의 경지, 깨달음의 길, 선정이라는 보물의 산에 들어가 자유롭게 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체에 손이 없는 것과 같고, 손이 없으면 보물의 산에 들어가더라도 아무것도 채취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불법의 산에 들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 이달의 명상

### 나 한 사람이 변하면

"…예전에 직장에 매여 허둥지둥 사느라고 가정이 귀한 것을 몰랐어요.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부터 조금씩 실천했어요.

지금은 아내를 단순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존경합니다. 아주 작은 선물 한 가지를 사더라도 아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지요.

그리고 정성을 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아내도 나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무척 존경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내를 존경하니까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나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집안 전체가 변하고 주변 이웃까지 변한다는 것을 절감했지요…"

요즈음 직장에 다니는 남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휴일도 없이 직장에 얽매이며 살아간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보니 아이들과 아내에게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살다가 어느 한 순간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아내와 가정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이웃이 화목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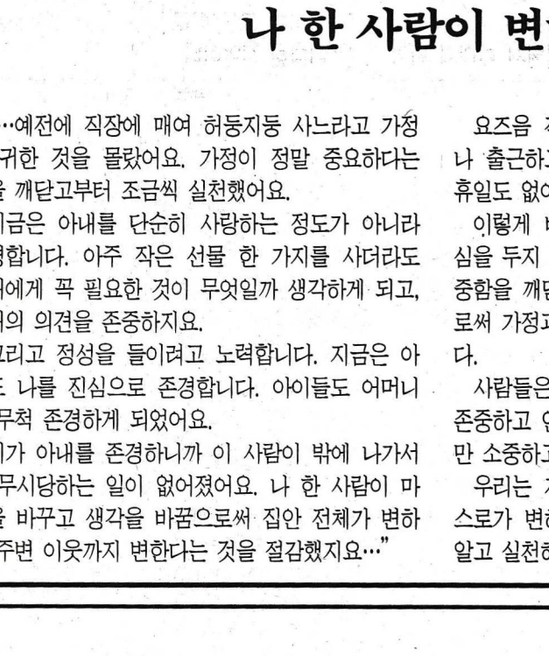
사람들은 자신의 집착과 분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와 자존심만 소중하고,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며 생활한다.

우리는 자신을 버리는 마음가짐과 실천으로 스스로가 변하면 모든 세상만물이 변한다는 진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윤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 『불설대승장엄보왕경』
##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옴마니반메훔》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 경전으로 알아본 밀교 수행법

# 밀교의 관법인 아자관과 준제다리니법

밀교의 수행은 성스러운 본존인 법신불과의 계합이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체험이 목적이며, 삼밀관행을 중심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밀(意密), 즉 마음을 삼마지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관법이다. 이러한 밀교의 관법에는 여러 가지의 구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자관과 오상성신관이다. 밀교관법의 기본구조는 수행자와 본존의 '입아아입(入我我入)'에 있다. 입아아입관은 보존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본존 속에 들어가 둘이 하나가 되어 융합하는 밀교관법의 궁극적 단계이다. 본존은 성스러운 예배의 대상이지만 밀교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이므로 동시에 자기가 본존이기도 하다. 그리고 밀교의 관법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그 기본적 특징은 '여실지자심(如實知自心)'으로 수행자가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서 분명하게 마음의 참다운 모습에 통달할 때 보리를 증득하게 되는 것이다.

### 아자관

1) 아자관의 상징적 의미

아자관(阿字觀)에 있어서 '아'자는 본래 태어남 없음, 즉 '본불생(本佛生)'을 의미하는 산스끄리뜨의 머릿글자를 취해서 한 단어에 일체법의 의미 전체를 여기에 지니게 한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42종 다라니 또는 50종 다라니라 하여 산스끄리뜨의 맨 처음 한 글자가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해 왔다.

모든 불. 보살을 한 글자의 진언 즉 종자로써 표현한 것도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 위에 있다. 또 '아'라고 하는 음은 산스끄리뜨 문자의 맨 첫 글자이기도 하지만 모든 산스끄리뜨의 음은 '아'음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산스끄리뜨의 명사에 '아'자를 붙이면 부정의 '불(不). 무(無). 비(非)'의 뜻을 함축적으로 지니는 경우가 많다. 진리는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성 때문에 불교의 경전이나 논서에서는 부정어를 붙여 진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동시에 이 '아'의 소리를 떠나서 일체의 음성이나 언설이 없고, 또 일체의 글자도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문자의 어머니이며 일체의 진언이 발생하는 근본이라 말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라고 하는 문자와 음에 의해 '아'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유한의 인간이 무한한 절대의 존재와 동체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있는 것으로서 이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 '본래 태어남이 없음, 즉 본불생(本佛生)이다. 무엇인가에서 생겨난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본불생이란 본래적으로 무한정한 것, 결국 진리 그 자체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본불생'의 체험이 그대로 '여실지자심'의 세계임과 동시에 바로 일체의 지혜인 부처의 경계이다. 따라서 본불생의 내적 의의는 이 '여실지자심'의 뜻으로 다하고 있는 것이다.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이 밀교의 근본적 입장이다.

2)아자관의 성격

밀교의 관법은 상징을 통하여 그 상징하는 바와 자신을 일치, 융합시키는 것이 요체로서 아자관은 그 대표적인 관법이다. 아자관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청정하고 원만한 월륜(月輪)과 그 위에 산스끄리뜨 문자의 아자를 놓고, 아자와 자신의 융합을 명상하는 관법이다. 즉 아자를 관하여 모든 법이 '본불생'이라는 이치를 체득하여 자신의 마음에 내재한 청정원만한 불성을 여는 보리심관이다. 이 관법은 아자월륜관. 정보리심관 또는 체속질력삼매라고도 한다. 만약 행자가 이 관법에 숙달하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고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마음의 연꽃이 활짝 피어 법신불의 과(果)를 얻는다고 한다. 이 관법은 실로 현생의 몸으로 성불을 이루고 순식간에 보리를 증득하는 지름길로 일컬어진다.

밀교의 관법수행은 만다라의 공양과 관정, 호마 및 여러 가지 염송법 등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아자관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아자관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관법은 밀교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아자관의 행법

아자관을 행하는 데에는 광관(廣觀)과 약관(略觀)의 두 가지가 있다. 광관은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 닦는 방법으로서 행주좌와를 막론하고 항상 입으로 아자를 부르며 대하는 모든 것이 아자라고



아자전도관

관하는 방법이다. 약관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닦는 것으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아자와 연화와 월륜을 관하는 것인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관법을 행하는 장소는 조용할수록 좋다. 그리고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곳이라야 한다. 너무 밝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너무 어두우면 망념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통트기 직전의 밝기가 갖추어진 곳이면 적당하다. 야간에 불을 켜야 할 경우에는 자기의 등뒤에서 불빛이 본존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본존도는 자기 몸과 60~90㎝ 정도 떨어진 곳에 걸어 놓는데 본존의 연화 아랫부분이 행자의 배꼽 정도의 위치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좌석은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것은 좋지 않다.

장소가 정해지고 관법을 행하려는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아자의 본존을 향하여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린 다음 금강합장을 한 채로 관법이 잘 행해지도록 서원을 하고 오대서원을 한다. 아자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정한 자신의 마음에 대일여래가 자태를 나타내고, 나의 마음과 대일여래가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가짐으로서 본불생의 이치를 체득하는 것이다. 먼저 본존의 월륜을 가슴에 넣고 그 위에 아자와 연화를 올린다. 연화는 흰색, 아자는 금색으로 떠올린다. 이때 아식관이라고 하여 호흡할



지권인

때마다 '아'음을 내면서 관하는 방법도 있다. 처음에는 스스로에게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다가 다음에는 입을 닫고 속으로만 '아'소리를 낸다. 아자와 연화의 형상이 흩어지면 다시 앞에 놓인 본존을 잠깐 보고 이미지를 계속 떠올린다. 이렇게 아음을 내고 아자를 떠올리며 대일여래의 이미지를 가슴에 품어 대일여래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대일여래에게 들어가는 것이 곧 소리. 글자. 의미의 입아아입관이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여 행하면 본불생의 이치가 체득되고, 이 몸으로써 즉신성불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자관의 궁극이다.

이 밖에도 아자관을 행하는 방법에는 일출을 보고 아자관을 행하기도 하고, 실제 달을 보면서 행할 수도 있다. 또는 월륜관에 아자대신 여러 가지 종자를 변화시키며 관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준제다라니법

준제다라니에 관한 내용은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이나 『대승장엄보왕경』등에서 보이고, 그 수행법에 대해서는 『현밀원통심요집』에 자세히 설해져 있다. 준제(准提, candi)는 산스끄리뜨의 음역으로 준지(准指) 또는 존제(尊提)라고도 하며 6관음의 하나이다. 준제는 '청정'의 뜻으로 심성의 청정함을 찬탄하는 명칭이다. 특히 밀교에서는 칠구지불모라 하여 그 덕을 찬양하는데 구지는 Koti의 음역이며, 의미는 억(億)으로서 7억은 준제관음의 광대한 덕을 표현한 것이다.

준제다라니의 수행법은 먼저 왼손은 금강권을 하고서 왼쪽 무릎위에 놓고, 오른손으로는 염주를 쥐고서 정법계진언 '옴 람'을 7편 외운다. 그 다음에는 호신진언 '옴 치림'을 7편 외우고 이어서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21편 외운다. 그런 후에 준제인을 결하여 가슴에 대고 준제진언 '나무 삿다남 삼먁 삼못다 구치남 단야타 옴 자례주례 준제 사바하 부림'을 21편을 외우고 나서 이마 정도의 높이에서 그 수인을 거둔다.

준제인법은 두 손의 무명지와 새끼 손가락을 서로 안으로 교차하고, 두 중지를 바로 세워서 서로 대고, 두 두지는 두 중지의 첫마디에 굽혀 붙이고, 두 엄지손가락을 오른손 무명지의 중간 마디에 댄다. 바로 이 권인을 가슴에 대고서 준제진언을 외우는 것이다.

그리고 준제진언을 외울 때는 준제권인을 하지 않고서, 왼손은 금강권을 하고 오른손으로 염주를 세면서 할 수도 있다. 만약 사무가 바쁜 사람은 권인을 하지 않고 준제진언만을 외워도 된다.

준제다라니는 부처님께서 미래의 박복하고 악업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것이다. 또한 경전에 부처님이 대비구와 보살들에게만 둘러싸여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는 천룡팔부가 함께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선신들의 가호가 없으면 미래의 죄많고 복없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교는 무한한 선교방편으로 고통 속의 중생들을 현실생활을 통해서 구제해 내는 것이 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 준제다라니를 지송하면 많은 공덕이 있게 된다. 우선, 이 다라니를 지송하여 구십 만 번을 채우면 무량겁에 지은 십악사중 오무간죄가 모두 소멸되어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불보살들과 만나 풍요한 재보가 있고, 언제든지 출가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만일 재가보살로서 계행을 닦아, 이 다라니를 굳게 수지하여 송하면 항상 천취에 태어나고, 혹은 인간으로서는 항상 국왕이 되어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성현에게 친근하며, 여러 천신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호위하고 받든다. 만일 세상 일에 종사하면 모든 재난이나 횡액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고 음성에 위엄이 있으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만일 출가보살이 이 다라니를 지송하면 모든 금계를 갖추어 가지게 되고, 아침. 낮. 저녁으로 항상 염송하여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 현세에서 구하는 바 출세간의 성취와 정(定), 혜(慧)가 나타나고, 십지바라밀을 증득하여 무상정등보리를 빠르고 원만하게 증득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준제다라니는 큰 영험이 있다.

이 다라니를 지송하여 일만번에 이르면 꿈 속에서 불보살을 보고 검은 물질을 입으로 토하게 된다. 이 때에 검은 물질을 토하는 것은 죄가 소멸하고 복이 일어나는 징조이다. 만약 이 만 번을 지송하면 꿈에 여러 하늘을 보거나 높은 산이나 나무에 오르거나, 혹은 큰 연못에서 목욕을 하거나, 혹은 하늘로 올라가고, 혹은 천녀들과 함께 노는 등의 몽조(夢兆)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주문은 모든 죄업을 없애고 일체의 좋은 공덕을 성취하며 큰 영험이 있어서, 구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여위주와 같은 위대한 진언이다.

〈자료출처 : 밀교사상사개론〉

## 정보 다이제스트

### "손만 잘 씻어도 질병 70%예방"

'손만 잘 씻으면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교육인적자원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음식업 중앙회 등 21개 기관과 단체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손 씻기 운동 확산에 나섰다. 이들은 손 씻기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목표아래 다음 달 초 '손씻기 범국민운동본부(가칭)'를 만들고 체계적으로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손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위인데도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손만 제때로 씻어도 감기, 이질, 눈병 등 대부분의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부 창립을 주관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손 씻기 운동을 담은 노래 , 캐릭터, 율동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나눠줄 예정이다.

### "장수하려면 아침밥을 꼭 먹어라"

"장수하려면 아침밥을 꼭 먹어라" 충남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100세이상 장수노인 대부분은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서산지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 14명(모두여성)을 면접조사한 결과 12명이 아침식사를 반드시 하고 10명은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식사에는 20~40분(10명)이 걸리며 한끼 식사량은 1/3~2/3공기(9명)였고, 싱겁거나(10명) 단(6명) 음식을 장수노인들이 선호했다. 또 장수노인들이 좋아하는 육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고, 젓갈류와 장아찌류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국이나 탕을 즐기는 노인도 2~4명에 불과했다. 반면 채소류와 생선, 해조류 등은 대부분 노인이 좋아했으며, 기호식품과 관련해서는 5명이 커피를 하루 1~4잔 마신다고 답했다. 잠은 오후 8~10시부터 다음날 4~7시까지 평균 8시간(최장11시간)을 자며 술. 담배는 처음부터 하지 않았거나 하다 끊은 경우가 11명과 10명으로 조사 됐다.

보약이나 건강보조제는 1명을 제외한 13명이 먹지 않으며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도 모두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 평균수명까지 생존 남성 3명중 1명꼴 암

한국인들이 평균수명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의 경우 3명중 1명, 여자는 5명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99~2001년 국가 암발생 통계결과를 발표하고 2000년 기준 평균수명(남성 72.8세, 여성 81.1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 29%, 여성이 20.2%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암발생 건수는 1999년 10만 889건, 2000년 10만 467건, 2001년 10만 9359건으로 조사됐다. 암발생 종류로는 남성은 위암 1만 3976건, 폐암 1만 49건, 대장암 5784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65세 이상은 폐암, 위암, 간암, 35~64세 위암, 간암, 폐암, 15~34세 위암, 백혈병, 간암이 가장 많았다. 여성의 경우 위암 7294건, 유방암 683건, 대장암 4647건, 자궁경부암 4361건 등으로 분포됐다.

### 청소년 사망 '자살' 2위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자동차사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5~19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률은 자동차사고 12.3명에 이어 자살이 8.2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암은 4.2명으로 자살의 절반 수준이었다.

암 다음으로는 익사사고와 화재사고가 뒤를 이었다. 20~24세의 경우 자동차사고(14.3명)와 자살(13.5명)이 비슷한 사망률을 나타냈고 암은 5.4명이었다. 한편 25~29세는 자살(17.0명)이 자동차사고(12.9명)를 앞질렀다.

### 초등학생 20% "친구왕따 경험 유"

초등학생 10명중 2명 이상이 친구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3천 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1%가 친구를 따돌렸거나 괴롭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응답자들은 친구를 따돌린 이유에 대해 29%가 '잘난척해서'라고 밝혔으며, 12%는 '친구가 하니까 그냥 따라 했다' 11%는 '냄새가 나거나 더러워서'라고 대답했다. 집단 괴롭힘을 당해본 피해학생 가운데 40.3%는 이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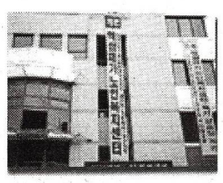

#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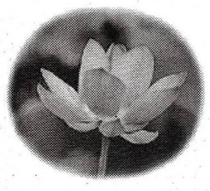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가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 · 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 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찬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 예 금 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총지법문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궤(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종조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원고 가운데 일부 입니다. 종조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획연재>

# 보리심계문(菩提心戒文) 〈3〉



### 보리는 보살의 만행이라. 대장의 당기와 같다
### 삼보를 버리고 외도에 귀의하지 말라. 삿된 법이 까닭이라

**수계(受戒) 갈마(羯磨)를 설(說)함 - 계사(戒師)**

모든 불자들이여 마음을 지극히 하여 자세히 들을 지어다. 이제 인자(仁者)를 위하여 갈마수계(羯磨受戒)하노니 정히 계(戒)를 받을 때라. 마음을 지극히 하여 자세히 갈마(羯磨)를 들을 지어다.

우러러 원(願)하오니 시방일체제불제대보살(十方一切諸佛諸大菩薩)은 자비억념(慈悲憶念)하시옵소서. 이 모든 불자들은 금일부터 비롯하여 내지(乃至) 당좌보리도량(當座菩提道場)에 이르기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제불제대보살(十方一切諸佛諸大菩薩)의 청정(淸淨)묘계(妙戒)를 수거(受擧)함이라.

**삼취정계(三聚淨戒)만 수계(受戒)하는 경우**

섭율의계(攝律儀戒)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 섭선법계(攝善法戒)라. 구족(具足)하게 수지(受持)하여 금일부터 비롯하여 미래제를 다하라.(三說)

삼취정계라(三聚淨戒)함은

일(一)에 섭률의궤(攝律儀戒)니 오계(五戒), 팔계(八戒), 십계(十戒)등의 일체계율(一切戒律)을 지키는 것이며

이(二)에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라 함은 일체중생을 이익(利益)케 하는 것이며

삼(三)에 섭선법계(攝善法戒)라 함은 일체 선법(善法)을 반드시 닦는 것이라.

삼취정계를 범하지 아니하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보리심계(菩提心戒) - 사섭법과 삼취정계를 수계할 경우**

사섭법(四攝法)을 닦고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수지할지니 금일부터 비롯하여 미래제를 다하게 하라.(三說)

사섭법이라 함은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니 무시(無始)의 간탐(慳貪)을 조복(調伏)하고 유정(有情)을 이익케 하고자 하는 고로 마땅히 보시(布施)를 행할 것이요. 진애 교만(憍慢)의 번뇌(煩惱)를 조복(調伏)하고 유정(有情)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고로 마땅히 애어(愛語)를 행할 것이요. 유정(有情)을 요익(饒益)하고 본원(本願)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연고로 마땅히 이행(利行)을 닦을 것이요.

선지식(善知識)에 친근(親近)하고 선심(善心)이 간단(間斷)없게 하기 위한 연고로 마땅히 동사(同事)를 닦는 것이라.

삼취정계(三聚淨戒)라 함은

一에 섭률의계(攝律儀戒)니 오계(五戒), 팔계(八戒), 십계(十戒)등의 일체계율을 지키는 것이며,

二에 요익유정계(饒益有情戒)라함은 일체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이며,

三에 섭선법계(攝善法戒)라 함은 일체 선법을 반드시 닦는 것이라.

이 계(戒)를 범하지 아니하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사바라이(四波羅夷)를 설하리라.

첫째 정법(政法)을 버리고 사행(邪行)을 일으키지 말지니라.

여래(如來)의 일체(一切)정교(正敎)는 모두 마땅히 수행(修行)하고 수지(受持)하고 독송(讀誦)할지니라.

마치 저 바다가 백천(百川)의 물을 받아들이되 싫어함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모든 법에서 요부요(了不了)에 따라 한 법이라도 취하고 버리는 마음을 내고 사행(邪行)을 일으킨다면 곧 훼범(毁犯)이 되느니라. 이것이 첫째 바라이(波羅夷)라.

범하지 않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둘째 보리심을 사리(捨離)하지 말지니라.

보리는 보살의 만행(萬行)이라. 마치 대장(大將)의 당기(幢旗)와 같으니 이 당기(幢旗)를 상실(喪失)한다면 삼군(三軍)은 패주(敗走)하고 승리는 적에 돌아가느니라.

이런고로 보리심을 사리(捨離)하지 말지니라. 만약 보리심을 사리(捨離)하면 둘째의 바라이(波羅夷)를 범한 것이니라.

범하지 않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셋째는 모든 법(法)에 인색하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모든 승법(勝法)은 모두가 여래(如來)께서 신명(身命)을 버리고 내지 그의 동복상좌(僮僕床座)가 되어 근고(勤苦)수행(修行)으로 얻은 것이다. 이것은 곧 일체중생의 부모(父母)의 유재(遺財)니라. 어찌 한사람을 위한 것이겠느냐.

만약 법에 인색하여 주지 아니한다면 삼보물(三寶物)을 도적하는 것과 같으니라.

범하지 않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넷째는 일체중생에 요익(饒益)되지 않는 행(行)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사섭법(四攝法)과 어긋나는 까닭이라. 보살은 사섭법을 수행하여 널리 일체중생을 섭(攝)하여 입도(入道)의 인연이 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도리어 사섭법과 어긋나게 하여 중생의 입도(入道)를 막는 인연을 일으키어 요익(饒益)을 버릴 수 있으랴?

그런고로 이를 범하는 것은 넷째의 바라이(波羅夷)라 하느니라.

이런고로 범하면 셋째의 바라이(波羅夷)라 하느니라.

범하지 않고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이제 이 네 가지 계(戒)는

첫째 계를 가지는 고로 시방삼세의 일체정법장(一切正法藏)중에서 모두 무작공덕(無作功德)을 나게 하고,

둘째 계는 시방일체보살의 행(行)중에서 모두 무작공덕(無作功德)을 나게 하며,

셋째 계는 시방삼세 일체의 도입문(度入門)중에서 모두 무작공덕(無作功德)을 나게 하며,

넷째 계는 시방세계의 일체중생 및 사섭(四攝)중에서 모든 무작공덕(無作功德)을 나게 하느니라.

십중계(十重戒)를 설하겠노라

첫째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지니, 이는 성불에 방해되는 까닭이라.

둘째 삼보를 버리고 외도에 귀의하지 말지니, 이것은 삿된 법인 까닭이라.

셋째 삼승(三乘)의 모든 교전을 비방하지 말지니, 이것은 모두가 불법(佛法)인 까닭이라.

넷째 심히 깊은 대승경전의 통해(通解)하지 못하는 곳에 의혹을 내지 말지니, 이는 범부의 경계가 아닌 까닭이라.

다섯째 만약 중생이 있어 이미 보리심을 발(發)한 자에게 이승법(二乘法)을 설하여 보리심에서 물러나 이승(二乘)의 마음을 발(發)하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삼보(三寶)의 종자(種子)를 끊게 하는 까닭이라.

여섯째 아직 보리심을 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또한 이승법(二乘法)을 설하여 그로 하여금 이승(二乘)의 마음을 내게 하지 말지니, 이는 본원(本願)에 어긋나는 까닭이라.

일곱째 소승사람과 사견가진 사람 앞에서 경솔하게 심묘(深妙)한 대승을 설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비방함으로부터 일어나는 큰 재앙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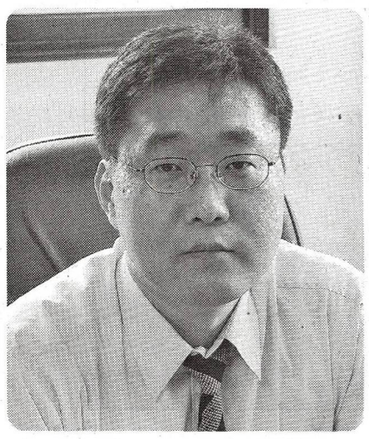
여덟째 사견을 내지 말지니, 이는 선근(善根)을 끊는 까닭이라.

아홉째 외도들 앞에서 내가 무상보리의 묘계를 갖추었다고 설하지 말지니, 이는 그의 지극한 마음으로써 법을 구하다가 얻지 못하면 보리심에서 물러가게 하여 둘이 함께 손실 있는 까닭이라.

열째 일체 중생에 손해되고 이익 됨이 없을 지면, 스스로 짓거나 남을 시켜 짓거나 또는 남이 짓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지 말지니, 이는 이타법과 자비심에 서로 위배되는 까닭이라.

이와 같은 열 가지 법을 능히 가지겠느냐? (능히 가지겠나이다)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 스트레스와 질병

우리의 삶은 갖가지 자극과 이에 대한 반응의 연속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스트레스다.

물론 스트레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격무에 시달리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휴가를 준비하는 들뜬 마음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도 있기 때문이다.

앞의 것을 흔히 '불쾌 스트레스(distress)'라 하고, 뒤의 것을 '유쾌 스트레스(eustress)'라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자극들은 곧 스트레스이며 그야말로 '인간은 스트레스의 풀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잘 조절하면 오히려 업무수행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주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스트레스가 병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또한 실제로 질병의 발병기전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발병을 막는 많은 보호인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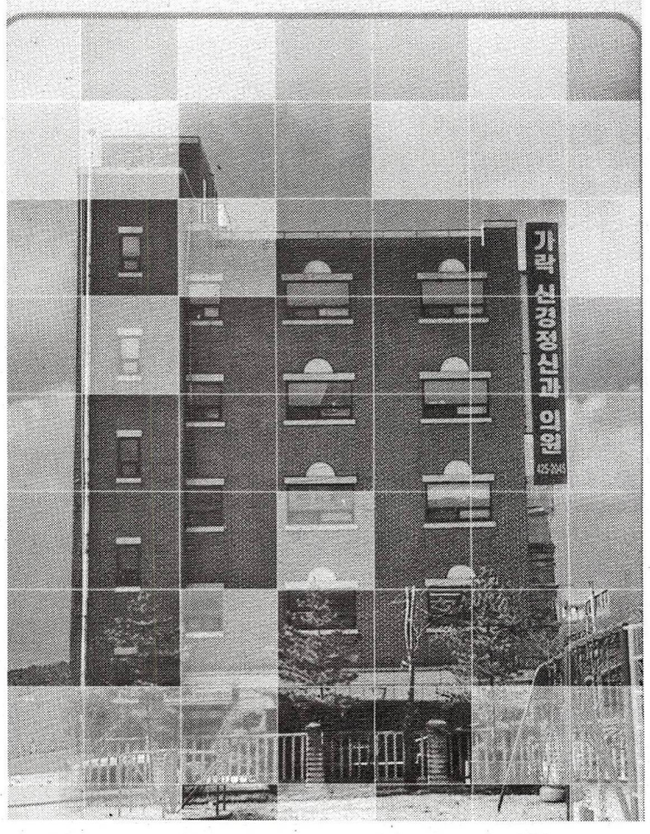
스트레스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견해 외에도, 스트레스가 행동의 변화(음주량, 흡연량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신체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와, 스트레스가 개인의 선천적인 유전적 결함, 과거의 조직손상으로 인해 취약해진 신체기관에 작용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

결국, 질병은 사회적 환경, 개인의 취약성, 건강 관련 행동, 정신생리적 기전 등의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스트레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발병 인자 중 하나일 뿐이다.

TV나 신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지고 일반인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마치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면 무슨 큰 병이 나는 것이고,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 스트레스란 자기의지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처하고 조절해 가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가락신경정신과의원
Garak Neuropsychiatric Clinic For The Elderly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 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식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로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주요경력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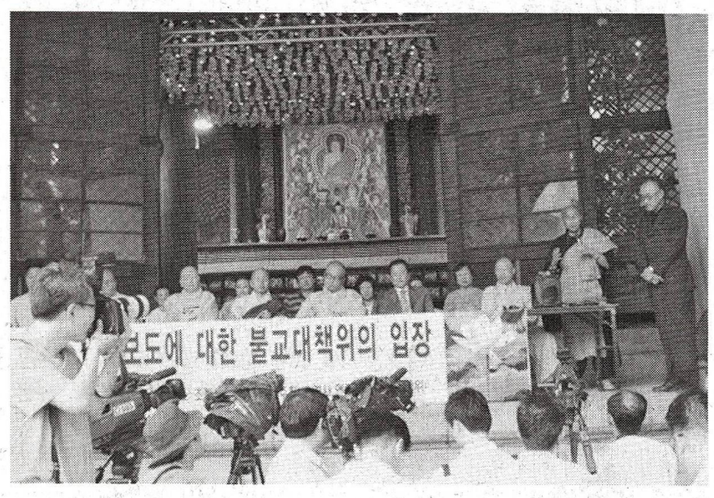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교계소식

# 국가인권위에 수경사 아동학대 진상조사 요구

## 수경사 대책위, "그것이 알고싶다" 진위파악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수경사에 대한 방송사의 보도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의 진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방송사의 선정적 보도태도에 대한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수경사 문제를 다루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보다 추측에 따른 정황이나 자원봉사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전달했다는 것과 아동의 화상 사진도 지난 1월 자원봉사자에 의해 입은 화상을 5월 취재 때 발생한 것처럼 교묘하게 짜깁기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경사 대책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은 7월 18일 국가인권위를 찾아 인신매매 여부 등을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에 △학대 내용의 사실여부 △인신매매 여부 △아이들 목욕문제 △언론 최초제보자 신원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했다. 수경사 대책위는 이와 함께 위장 봉사자의 몰래카메라 촬영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와 아이들을 불교단체가 다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진관 스님은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국가인권위 조사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경사 대책위의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한 관계는 "진정 건에 대해서는 1~2주내에 조사관을 배정한다"며 "보통 3개월이내에 진정을 각하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회신을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 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응급조치교육

천태종 복지재단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관문사에서 응급조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응급처치교육은 천태종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단인 니르바나 봉사자 및 일반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봉사자들은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의료진이 없는 곳에서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치료를 받기 전까지 심리적으로는 안정하면서 환자를 즉각적으로 처치해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생명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익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적십자사의 전문 응급처치 강의와 교육수료자 전원에게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과정 수료증이 발급되었다.

한편 천태종 복지재단은 8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간병인 교육을 실시해 불자들의 자원봉사활동방안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 진각종, 울릉도에서 회당문화축제

### 가요제 및 무료진료봉사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울릉도 지역 주민의 문화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울릉도 도동항 가설무대등에서 제 5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진각종이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문화원 울릉청년단 진각복지재단 문화복지연대 등이 후원하는 제 5회 회당문화축제는 진각종 스승과 독도수비대, 울릉군 주민, 관광객 등 1만4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동항 가설무대와 울릉 초등학교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11일부터 12일에는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도동항 풍등 날리기 행사가 열린다. 이어 13일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문공연과 행사기간 동안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풍등제작, 소망등 달기, 독도사랑 전각탁본,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회는 축제기간동안 독도수호대와 공동 주관으로 '독도의 날' 제정 1천만인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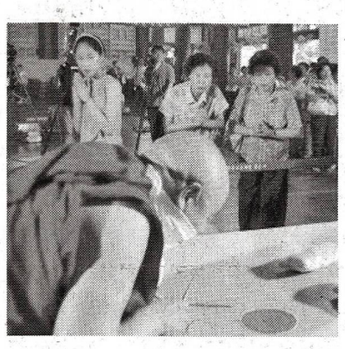
이밖에도 진각복지재단과 연대, 고려대 안암병원이 공동으로 11일과 12일 양일 간에 걸쳐 울릉군 여래심인당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회당문화축제 준비위원장 이행정(문화사회부장) 전수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회당문화축제가 이제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낀다"며 "타 도시에 비해 문화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울릉도가 회당문화축제를 계기로 넓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각종의 초청으로 울릉도 회당문화축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 티베트 '모래 만다라' 특별전

### 달라이라마 칠순기념과 세계평화 기원



달라이라마 성하의 칠순을 기념하고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모래 만다라 특별전이 서울 종로구 사간동 법련사 불일미술관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에서 개최되었다.

일본 신주쿠에 있는 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대표 죠베 팔조 체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은 티베트를 알리는 공식적 소통로인 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와 더불어 티베트 전통과 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첫 행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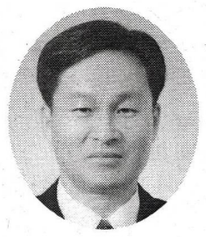
모래만다라 특별전은 1차 전시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렸으며, 달라이라마 동북아사무소 개소 기념식 및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티베트 전통 만다라 중 하나인 모래 만다라 전시와 함께 규토사원 특별 예불의식이 시연되었다.

특히 규토사원 특별 예불의식은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사원에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티베트 스님들의 전통 예불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연된 것이다.

또 7월 17일에는 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자 스님의 특별법문과 규토스님 특별 예불의식이, 7월 19일에는 김규현 한국티베트문화연구소장의 특별강연, 7월 21일에는 전시기간 중 만들었던 만다라를 모두 강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인 회향식, 희운 스님 연꽃 그림전 등 부대행사가 마련되었으며 봉은사에서 모래 만다라 2차 특별전시가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다.

## 아함경 이야기

# 최초의 설법 〈1〉



화령 정사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신 후 네란자라강 근처에서 자리를 바꾸어 가며 수 주 동안 삼매에 들어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붓다가 된 것을 확실히 자각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마음 속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아함경》 가운데의 〈대본경〉이라는 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나 이 진리는 지극히 깊고 미묘하여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워 고요하고 청정하며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을 뿐 범부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것은 중생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에 따라 제각기 구하는 바를 즐기고 제각기 익힌 바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깊고 미묘한 인연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애욕이 멸한 열반은 더욱 알기가 어렵다. 내가 만약 이들에게 이러한 이치를 설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틀림없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나만 더욱 번거로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증일아함경》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 번뇌를 버리고 원인을 제거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 누군가와 같은 생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은 큰 기쁨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매우 깊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보기 어렵다. 적정 미묘해서 사유의 영역을 뛰어 넘은 지혜로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욕망을 즐기며 날뛸 뿐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깊은 이치를 가르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모든 현상은 서로 의지해 있으며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원인을 제거하면 갈애는 끝나고 탐욕을 떠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만일 내가 이런 법을 가르쳐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번거로울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게송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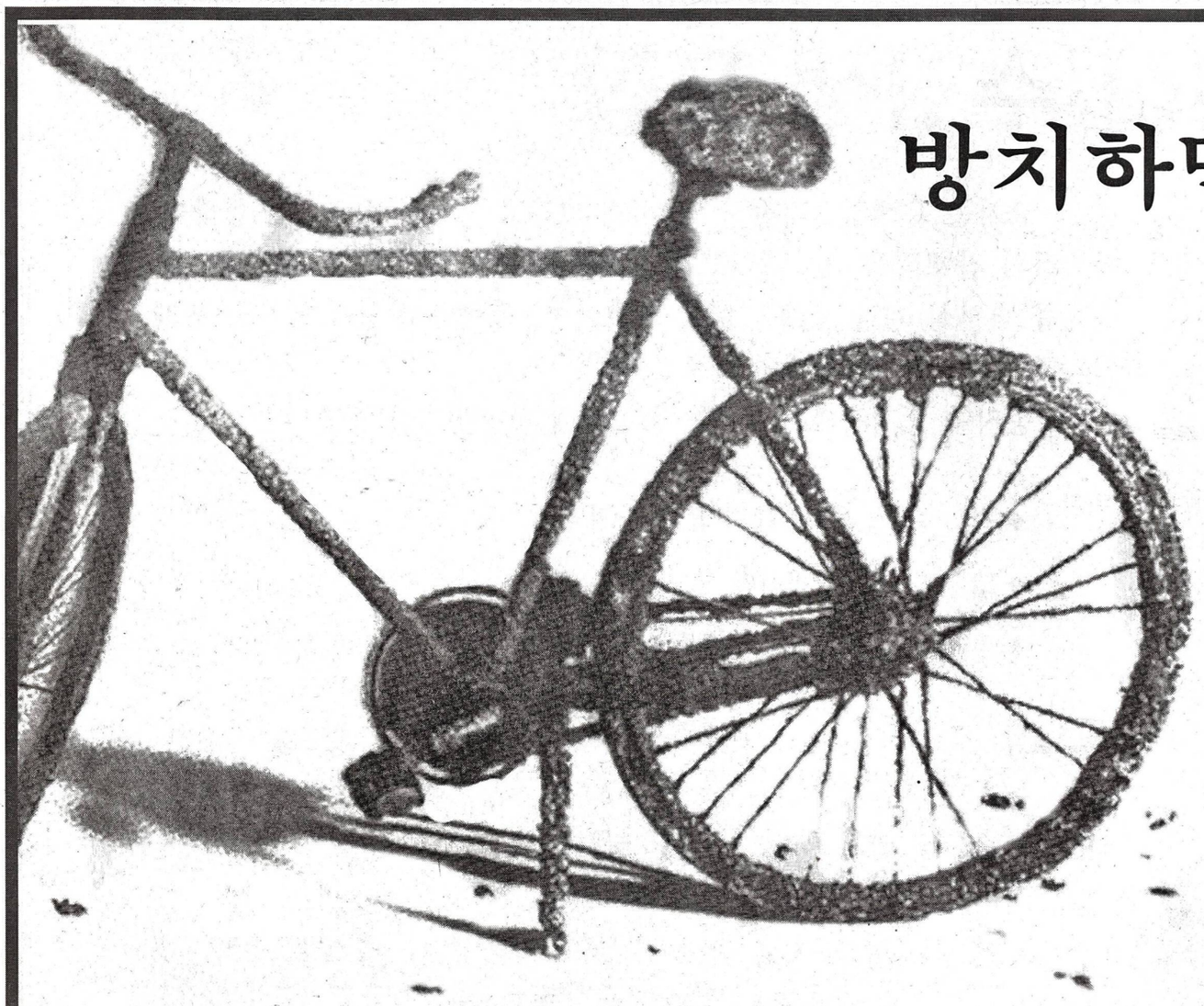
애써 증득한 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할 것인가. 탐욕과 분노에 불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깨닫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법은 세간의 상식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난해하므로 욕망의 격정에 빠진 자, 무명으로 휩싸인 자에게 알게 하기는 어렵다.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깨달은 진리를 음미하며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시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의 뭇 중생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의 이치는 너무 깊고 미묘해서 편견과 아집, 탐욕에 물든 중생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진리를 그들에게 얘기해 봐야 나만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상대하면 답답하고 속 터지는 데 지극히 깊고 미묘한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상대로 그것을 전달하려고 생각이 미치었을 때 얼마나 난감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예로 든 경전은 그러한 심경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달해 줘야겠다고 마음이 일어나신 것은 어쩌면 나 홀로 깨달았다는 적막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높은 산에 올랐을 때 그 뿌듯함과 함께 누군가와 같이 이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누구도 이르지 못했던 위없는 깨달음에 이르시고서 주위를 둘러보니 그 깨달음에 대해 얘기를 나눌 사람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넓다지만 그러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오직 부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은 어쩌면 외롭고 불안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존경하고 받드는 스승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안하다. 누군가 존경하고 스승으로 섬길 만한 사문이나 바라문은 없을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을 다하셨겠습니까? 누군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독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연기로써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있고 관계를 가진 가운데에서 모든 현상이 발생하고 소멸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셨다고 해도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바위나 나무와 무슨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사상이나 문학, 예술이니 하는 것도 혼자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해서 그것이 공감을 얻을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으신 진리를 혼자서 지닌다는 것은 어쩐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이서 존경하고 스승으로 받들 사문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방치하면 부패는 계속됩니다.

부패가 심해지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부패관행이
나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부패를 방치하면 결국,
나 자신에게 피해가 생기게 됩니다.
부패에 관한 성숙된 고발정신,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아제아제바라아제

# 수경사의 교훈



윤남진
〈참여불교연대사무국장〉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수경사의 두 얼굴'이 방영된 이후 불교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그 후 불교단체들이 관련 대책위를 만들어 sbs의 과장왜곡보도라고 하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는 소리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는 아직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교계가 sbs의 방영으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과 국민적인 불신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불교계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만큼 우리의 내부를 잘 관리하면서, 우리 불교조직체 구성원의 의식 수준과 조직운영 수준을 사회보편적 표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네트워크 사회이자 열린사회, 투명사회이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체에서 공공관계(PR)가 매우 중요해 졌다. PR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 그것은 대중(공중)과의 상호 의사소통이자 설득의 과정이고 상호인정의 과정이다.

어느 조직체나 내부에 명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직체 내의 어두운 면을 자발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직체 내의 어두운 면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알려진 것과 달리 억울한 점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공중을 설득하여 감정적인 여론재판에 몰리지 않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수경사의 교훈은 우리 불교계와 그 내의 각각의 조직체에게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응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열린사회, 투명한 사회에 불교조직체의 의식수준과 조직운영수준 향상해야"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네 차례나 기각시켰다고 한다. 수경사 사미니에 대해 언론은 아동매매, 후원금의 유용,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 했다.

현재 수사상황으로는 아동매매, 후원금의 유용 등에 대한 혐의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아동학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국민소득 1만2천 달러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과 한국의 보통 불자들은 방영된 것과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물론 13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해를 하지만 말이다.

검찰 등 사직당국은 즉, 법률적인 판단은 아동학대로 처벌할 만한 수준의 방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문제를 제기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관련 단체들을 모아 '수경사 아동학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방치에 의한) 아동학대로 기정사실화 하고자 하는 듯 "태어난 지 6개월된 여러분의 자식이 운다고 여러분은 베개로 막고 화장실에 넣어 버리겠습니까?"라며 일반 국민의 감정과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교계소식

# "더이상 학생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서울시교육청에 시정명령권 청원



서울 대광고의 종교 수업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과 학교종교자유를 위한시민연합(공동대표 권진관 등, 이하 학자연)은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시정명령권 발동을 청원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과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은 7월 19일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해 △5분 예배 폐지 △수요일 학년 예배 개선 △종교 수업 선택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 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서울시내 각급학교 종교 자유 침해 사례들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자연 류상태 실행위원(前 대광고 교목실장)은 "더이상 학생들이 종교 문제로 학교에서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종교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종자연 손상훈 팀장도"대광고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립학교에서 종교편향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6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 장학사(교과과정 담당)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7월 22일까지 두 단체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 "금강산 4대 사찰 복원될 것"

## 신계사를 비롯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신계사를 비롯한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 금강산 4대 사찰은 반드시 복원될 것입니다."

신계사 도감 제정 스님이 7월 16일 조계사 청년회(회장 정우식) 주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통일법회에서 금강산 4대 사찰 복원 가시화를 언급했다. 제정 스님은 "이미 정부와 조계종, 현대아산 등은 4대 사찰 복원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신계사 복원이 마무리되는 2007년 이전에 다른 사찰 복원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 스님은 또 "신계사에서 상주하면서 1000일 기도를 진행할 스님을 7월 18일 발표할 것"이라며 "상근 직원 1명과 자원봉사자 10여명도 선발했다"고 전했다.

제정 스님은 이어 "8월 초부터는 만세루 복원불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요사채와 산신각도 차례로 제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의 성지 금강산 신계사의 24시'를 주제로 법문에 나선 제정 스님은 신계사에서의 일상과 남북불교교류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으며, 7월 17일 금강산 신계사로 돌아갔다.

한편, 조계사 청년회 8월 통일법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 3차 결집대회 내년 4월 21일 해인사서

## 불교음악-무용 등 소개… 한국전통문화 홍보 중점

국내외 불교학 관련 연구 성과를 총 점검하고 세계불교학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제 3차 대회(대회장 종림 스님 이하 결집대회)가 내년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해인사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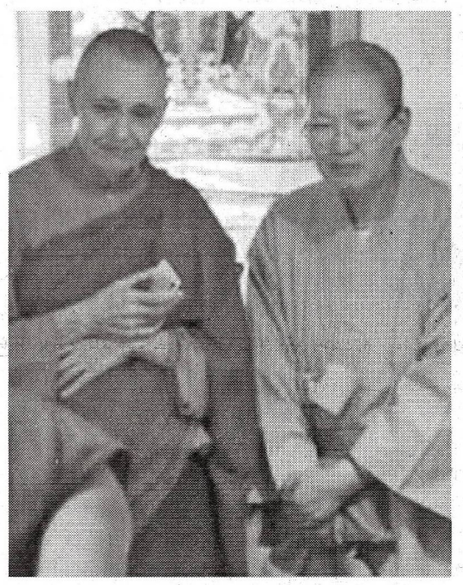
결집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중표)는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회일정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한국 대표 사찰인 해인사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불교학연구자들의 학문 교류 뿐 아니라 세계 불교학자들에게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결집대회 프로그램을 템플스테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참가자 전원이 발우 공양, 예불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회 전날 열리는 21일 전야제에서는 전남대 음대 교수들의 판소리 및 국악 공연, 스님들의 범패 공연 등이 마련돼 있어 국내외 불교학자들이 한국불교전통문화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위원장 이중표 교수는 "지난 대회가 학문적 교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이번 대회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한국 전통산사에서 불교음악과 무용 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국제학술대회의 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집대회 조직위는 현재까지 일본의 동아시아 불교연구회(회장 간노 히로시)를 비롯해 중국, 미국, 인도 등에서 참가의사를 밝혀왔으며 개별적 홍보 작업을 통해 외국학자들의 참가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집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에서 대학강사, 석사학위 소지자, 불교관계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발표자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장학자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사찰 강원의 강사 스님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전통 교학 연구자들과 현대 불교학자들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 전개

## 종교 · 의학 · 학술 · 예술분야 등 상호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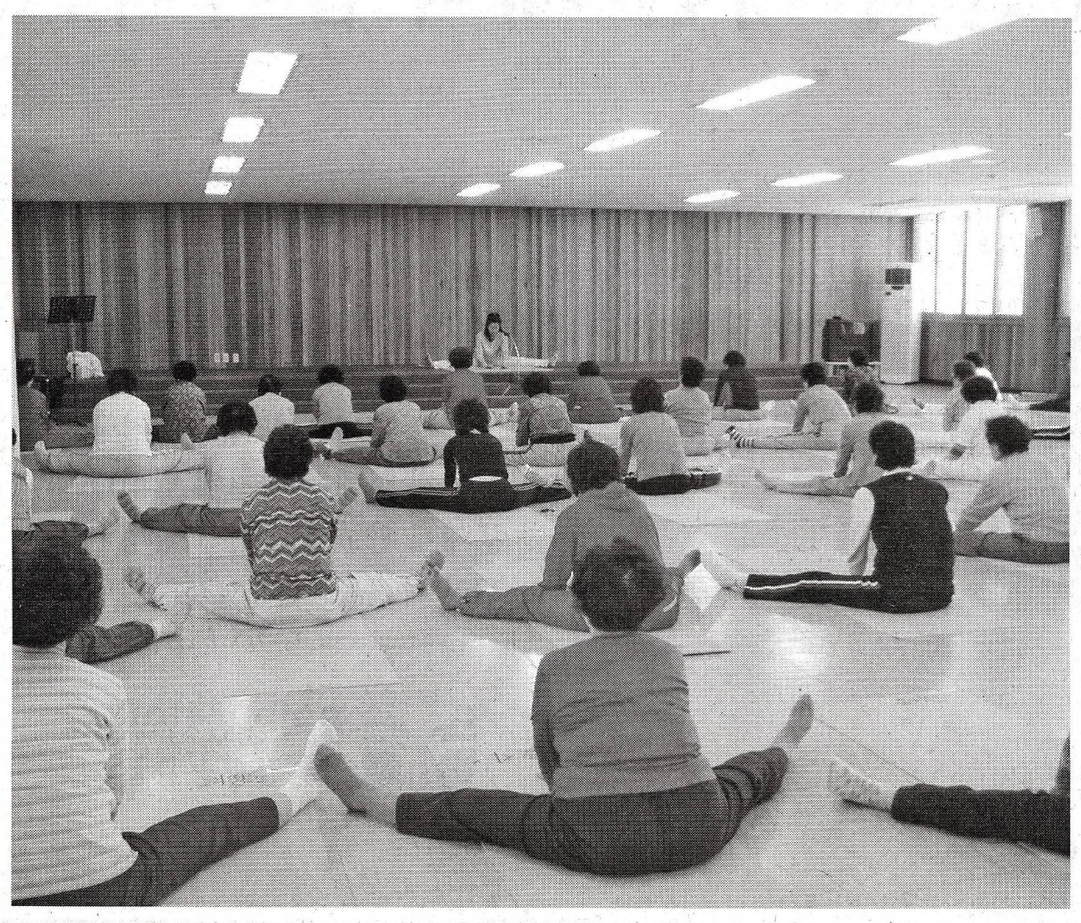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서울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인 한국- 티베트 간의 불교문화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가 금년 초부터 준비해온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Grassroots Movement)'이 본격적으로 가동,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11월 현대불교와 자매결연한 티베트승가대학 가덴 장세 주지 켄 린포체(오른쪽)가 불교정보센터 실장 청월스님에게 결연을 축하하는 스카프를 걸어주었다.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 의학, 예술, 종교분야 등 범문화적 상호 교류 프로그램이다. 여러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유대해서 또한 풀뿌리처럼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류를 맺자는 것이다. 1대1 교류 및 단체 대 단체, 개인 대 단체등 다각적인 인연을 맺는 운동을 벌인다. 일회성 내지는 이벤트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참여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의 승가대학 및 사찰의 학인 스님들을 후원하는 활동을 벌인다.


# 건강 요가교실 수강생 모집



요가는 육체적 · 정신적 · 감성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시키고 증진시키는 총체적인 수행 시스템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삶의 과학이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통제 · 조절할 수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다.

총지종 총지사와 정각사는 요가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대 상 : 일반시민

◆ 수강시간표 : 총지사 - 매주 월, 수, 금 오전10시, 화, 목 오후 3시
매주 월, 화, 수, 목, 금 저녁 7시
매주 월, 수, 금 저녁 8시
정각사 - 매주 월, 수, 금 오후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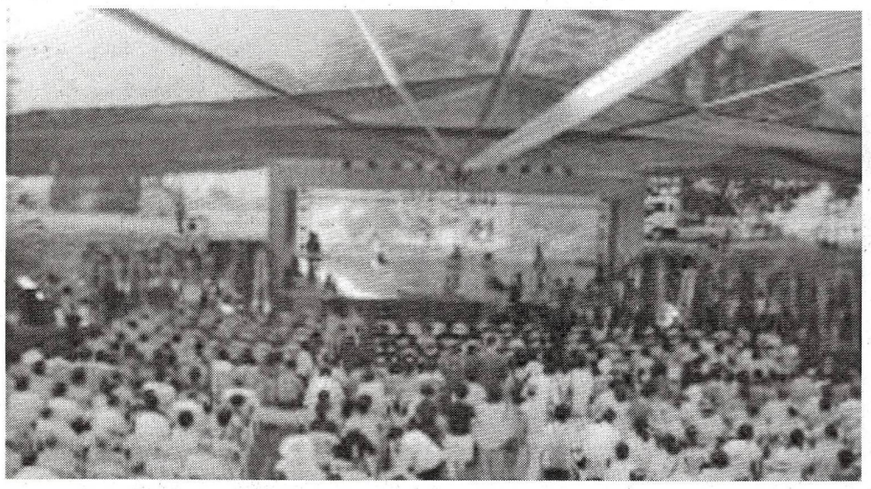
◆ 수 강 료 : 총지사 - 월 \30,000원, 월 \20,000원
정각사 - 월 \10,000원

◆ 연 락 처 : 총지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
정각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7901

교계소식

# 2005 만해축전

## 문학의 향기로 세계 평화



만해 스님을 기리는 문학인들의 향연이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펼쳐진다. 2005 만해축전은 8월 2일 시조문학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그 막을 올린다.

올 해는 특히 전 세계 유명 시인을 비롯해 국내·북한 시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2005 세계평화시인대회가 예정돼 있고 국내 문인 천 명이 함께하는 한국문학 심포지엄 등 광복 60주년을 맞은 문학 심포지엄도 다수 계획돼 있으며, 시인학교와 백일장 등의 문학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8월 11~15일 열리는 2005 세계평화시인대회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 시인들·남북한 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잉카(198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나이지리아) 시인을 비롯해 로버트 하스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시인 60여 명이 참가한다.

또한 김지하, 신경림 등 1970년 이전에 등단한 국내 시인 50여 명도 동참의 뜻을 보내왔으며, 북한의 대표시인 30여 명은 현재 초청 섭외 중에 있다.

이들 국내외 대표시인 150여 명은 12일 만해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이후 북한의 금강산을 찾아 '평화'를 주제로 한 자작시를 낭송한다. 세계평화시인대회 준비위원장 권영민 교수(서울대)는 "남·북한 시인들이 함께하는 자리도 흔치 않았지만, 전 세계 유명 시인들과 남북한 시인들이 '북한'에 집결해 '평화' 주제의 자작시를 낭송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14일에는 각 언어권별 시인들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인의 평화선언'을 갖는다. 자신들의 시 세계를 소개하고 평화를 주제로 함께 토론을 나누는 자리다. 같은 날에는 미국의 계관시인 로버트 핀스키 교수가 기조강연과 함께, 월레 소잉카의 특별 강연 무대도 예정돼 있으며 광복 60주년을 맞아 펼치는 학술세미나가 다수 마련됐다.

특히 김윤식 명지대 석좌교수가 '이광수와 불교사상'을 발표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8월 13일 '불교사상과 문학의 습합' 심포지엄에는 법화경의 문학적 연구(박찬두), 불교사상이 박상륭의 소설에 미친 영향(임금복), 한용운 시에 나타난 님의 특성(맹문재) 등의 발표가 진행될 계획이다.

# 개성 영통사 성지순례 임박

## 천태종, 8월경 대북접촉 예정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이후 개성관광 합의이후 영통사 성지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개성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천태종이 추진하는 영통사 복원 및 성지순례 행사는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서로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는 만큼 현대아산이 8월 15일 시범관광을 통해 관광에 필요한 숙소, 관광비용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점검을 마칠 경우 영통사 성지순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은 연초부터 2차례에 걸쳐 조선불교도연맹·북측 영통사복원위원회와 실무회담을 갖고 복원불사가 마무리된 영통사 낙성식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을 추모하는 학술세미나,영통사 성지순례 시기 및 횟수, 순례단 규모등을 논의해왔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개성관광에 대한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일정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천태종도 8월경 북한측과 영통사 성지순례를 의제로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10·27 법난 불교대책위 발족

## 과거사의 진상규명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이후 10·27 법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이와 관련한 대책위를 구성하였다.

10·27 법난 불교대책위원회(상임대표 법타, 이하 법난대책위)는 7월 4일 송현클럽에서 결성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법난대책위는 결성식에서 10·27 법난 당시 피해를 당한 스님들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법난대책위 상임대표 법타 스님은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피해 스님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소임을 다하고자 대책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동 목사는 불교방송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10·27 법난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동 목사는 "불교계에서 정식으로 10·27법난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며 "위원회는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원불교, 군부대 내 종교 활동 본격 시작

'육군부사관학교에 첫 번째 교당 건립'

군내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는 원불교가 최근 군부대 내에 첫 번째 종교시설을 건립했는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이외 소수종교의 군 내 종교 활동은 지금까지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군부대 내 원불교 종교시설 건립은 군 포교활동 상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원불교 이외 다른 신흥종교들이 본격적인 군 포교활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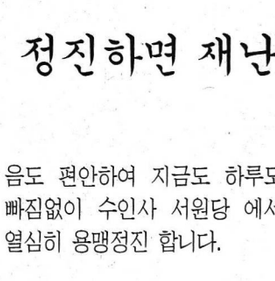
원불교 교당이라고 알려진 것은 국군에 의해 연구시설로 분류된 강의실을 개조해서 만들어졌다. 원불교측은 강의실 정면 칠판이 있던 자리에 일원상 등 종교 상징물을 조성하고 평상시에는 칸막이로 가렸다가 행사 때에는 드러내는 방식으로 강의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종교시설 이외 지역 교당 건립은 일종의 편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부사관학교장이 원불교의 종교 활동을 인정한 만큼 이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신행체험 ㉓

# 정법으로 소원성취

## 미묘한 밀법으로 깨치고 증득 정진하면 재난소멸과 소원성취



권오남(길수인) 보살

〈수인사 신정회 회장〉

▶.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수행법은?

- 특별한 수행법은 없고 스승님 말씀은 곧 부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며 허물이 있을때 바로 깨치지 못할 때 스승님과 보살님 뵙기 송구할 뿐 그냥 꾸준히 묵묵히 정진합니다.

▶. 총지종 수행법의 좋은 점과 수정할 점은?

-좋은점 : 열심히 정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고 재난 소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수정할 점 : 공식시간이 너무 길어 바쁜 현대생활에 적합지 않고 젊은 사람들 제도에 문제있습니다.

▶. 수인사 교도들 자랑할 점

▶.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된 계기?

- 29살에 무슨 이유인지 뚜렷한 병명 없이 몸이 아파 종시누이가 진각종 절이 있는데 몸이 아픈 사람 병고 해탈은 쉽다고 말하기에 입교하여 열심히 정진하였더니 몸도 쾌차하고 마음도 편안하여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수인사 서원당 에서 열심히 용맹정진 합니다.

▶. 총지종에서 수행하시면서 얻은 공덕은?

- 총지종은 미묘한 밀법으로써 수행하면서 깨치고 증득하면서 날마다 달마다 즐겁고 가족이 화목하고 각자님, 자녀들, 사업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지력인가 합니다.

▶. 수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 젊었을 때에는 불공도 해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살림도 살아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만 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 팔다리도 아프고 몸은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예전에 하던 습이 있으니 수행하는 것을 줄이지 않고 하니 자녀들이 "어머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 절에 제도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 총지종 종단과 수인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은?

- 죄송합니다. 종령님, 통리원장님 수인사 신정희 회장 권오남 입니다.

저희 포항에 사는 친구들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수인사에 다닌다고 하면 수인사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보정심인당은 아는데 수인사는 더 좋은 위치에 자리했는데도 보이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화합된 모습으로 정진해 주시고 실천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승님 내외분과 저와 보살님 용맹정진 하셔서 오세대 제도에 매진합시다.

## 나도 한마디

# 참회와 용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홀로 무인도에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사회공동체속에서 사람들과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할 운명이며, 필연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움과 증오로 상대방을 격멸하고 미워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마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경에 '미움은 미움으로 수원을 갖지말고, 증오는 증오로 갚지말라.'라는 구절이 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상대의 허물만을 보지 말고 나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참회이다. 참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되어 생각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했다면 그 허물에 대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스스로 참회를 했지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참회라 할 수 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아름다운 일이요, 용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상대방 또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되어 서로간에 가슴속에 뭉쳐진 원한과 미움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된다. 평생을 원한과 원망으로 살지 말고 참회와 용서로 생활하면 항상 사랑과 자비로운 삶이 영위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와 싸움에서 이기기만을 바라지 말고 질 줄 아는 자세, 나의 자존심을 조금 버리며 생활하는 자세가 바로 부처님의 극락정토요, 동체대비의 평등한 불법의 세상이다.

〈김정복/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21C 建設文化의 創造






연흥종합건설의 전 직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하여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건전한 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미래지향적인
기술개발로 21C 건설문화를 선도하여
사회에 봉사하고자 합니다.

기업이념(企業理念)

신용을 아는 기업　　인정받는 기업
책임을 아는 기업　　봉사를 아는 기업

고객 최우선과 고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능력을 다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 된다.

경영이념(經營理念)

상호존중　　기술혁신　　고객만족

인간의 창의적 능력을 상호 존중하고 기술혁신과
경영 합리화로 고객 만족과 가치창출을 최대화한다.

延興綜合建設 (株)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7-8
TEL : 031)856-3301 FAX : 031)856-3303

#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교도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교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교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 동체대비의 부처님정법 수행도량



굵고 가느다란 장마비가 무릇 고통과 애환으로 가득찬 중생들의 아픔을 쓸어내리듯 하염없이 내리고 있다. 밤새 내린 장마비가 그친 포항시의 창공에는 쌓여있는 먼지들이 모두 쓸어내려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나그네를 유혹하고 있다.

청명한 수정처럼 맑고 순수한 사람들이 수행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정진수행도량 수인사를 찾아가본다.

## 수인사의 연혁

수인사는 총기2년 포항시 신관동소재 3층 빌딩 중 2층을 임차하여 포항선교부로 개설하고, 총기3년 포항시 덕산동에 학교법인 성인학원을 매수하여 불단이설하고 총기4년 수인사로 개칭하였다.

수인사에는 전 종령이신 록정대종사와 묘행정전수가 초대주교로 임명되어교화하셨으며, 자선화전수, 일신행전수, 원봉정사, 지선행전수가 교화하셨으며 현재는 지공정사와 지회심전수가 중생교화를 위해 용맹정진하고 있다.

다음은 지공정사와 지회심전수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 날마다 자신을 관조하는 삶

참된 지혜란 부처님의 지혜를 일컫는 것으로 반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분별의 지혜를 넘어선 깨달음의 이치인 분별이 없는 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를 대자대비의 지혜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보살의 마음가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상대적으로 비교될 경우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구분하지 않고 그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자비를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자대비한 바른 지혜만이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팔정도란 번뇌를 제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덟 가지 적극적인 실천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거짓말이나 근거없는 남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 바른 언행(正語), 살생과 음행 등을 하지 않는 바른 생활(正行)은 우리의 지나친 욕심을 점차적으로 줄여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확실히 믿고 따르는 바른 마음가짐(正念), 부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닦는 바른 수행(正情進), 그리고 남들의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없는 바른 마음자세(正定)는 우리의 마음을 분노, 시기, 질투로부터 지켜 줄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사물을 바라보는 바른 견해(正見), 바른 생각(正思)은 어리석은 판단 대신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지혜, 즉 반야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로 물들이는 삼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마음 현상입니다. 또한 각각의 삼독들 역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욕심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성내는 마음의 원인이 되며, 그 성내는 마음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어리석은 판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독을 다스리는 법인 삼학과 팔정도도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를 지킴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바른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남들의 비방과 고해에도 따뜻한 웃음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서 감싸주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독으로 인해 생긴 번뇌도, 그것을 다스리는 삼학과 팔정도도 어는 것 하나 개별적으로 생성 소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안팎의 모든 것들이 서로 의지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울 때 우리의 마음은 전체와 객관을 잃어버리고 나침반을 잃어버려 표류하는 배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속에서 우와좌왕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과욕과 분노 그리고 선입관과 편견으로 인한 어리석은 판단속에서 평온과 고요를 잃어버립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를 조용히 바라보고 그 마음의 현상을 원인과 결과를 나누어 보는 자기관조의 시간을 가지는 생활습관은 삼독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부처님의 마음 가까이로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 법을 실천하는 큰 복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라는 뜻으로 '붓다'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설법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 설법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불. 법. 승 삼보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니 중요하고, 경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는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부처님의 제자가 왜 중요한 지는 『화엄경』의 「현수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자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고, 그 분의 가르침이 경전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했고, 경처럼 설법도 해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믿고 실천합니다. 그래서 불자는 중요한 것입니다.

실천하면 불자고, 실천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닙니다. 만을 실천할 수도 있고, 천을 실천할 수도 있고, 백을 할 수도 있고, 하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실천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제는 행(行)하는 것입니다.

수행(修行)이라고 할 때 수(修)나 행(行)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자에게는 수행이 중요합니다. 불자의 수행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삼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불교의 신심(信心)입니다.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즉 중생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은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을 잘 실천하면 거기에서 큰 복이 생기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화가 생기는 것이지, 법과 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불자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계시고, 경전만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불자가 없다면 그것은 불상과 경전만 있을 뿐 불자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불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불자의 실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중생의 불성에 대한 믿음, 즉 중생도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나'와 '너'라는 분별심과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자비심을 실천하고, 천하고 귀한 사람이 없는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아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미움을 은혜로, 수원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세와 더불어 실천이 가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심으로 불. 법. 승 삼보를 굳게 믿고 용맹정진하면 반드시 소원이 성취되고, 해탈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0-1
전화 : 054-247-7613






## 인터뷰

## 수인사 지공 정사, 지회심 전수



지공 정사



지회심 전수

**▶ 언제부터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기 7년 현 자석사 회장님이신 이영일 보살님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보살님 절에 다니시거든 제가 다니는 곳에 한 번 가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날마다 법회를 하며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있으며 전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정말 좋다고,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정진하시면 원하시는 서원은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게 된 곳이 부산 부곡동에 위치한 정각사이며 그때 정각원 스승님을 뵙고 설법을 들은 것이(그때만 해도 종조법설집 없었음) 지금의 종조법설에 "부도 집에 어진 부인이 있으면 가장이 횡화를 만나지 아니하나니 어진 부인은 가장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가장을 천하게 하나니라 어진 며느리는 육친을 화하고 재주 있는 며느리는 육친을 파 하느니라 하늘天이 지아비 夫보다 위에 점이 하나 없으니 남편에게 수순하라.

남편보다 여자가 잘난체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면 여자가 我相이 많으니 남편 하는 일이 안되며 잘난 여자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남편에게 유순하고 열녀하게 되면 가정은 바로서고 자녀들은 큰 보배가 된다"고 하신 말씀에 총지종과의 지중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입니다.

**▶ 지공 정사님과 지희심 전수님을 보면 수행자로서의 행동과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행하시면서 나름대로 수행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수행에 무슨 철학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누겁 동안의 습관이 행이 되고 행이 업을 (선업이든 악업이든) 만듦을 보니 철저한 자기 내면을 살피며 지혜로운 삶은 살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부처도 스승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일러 줄수는 있어도 악업의 과보는 누구도 대신 할자가 없으며 누구도 대신 닦아 줄수 없으니 경과 계로서 스스로 몸과 입을 잘 단속하며 젖은나무(게으른 중생) 불(정진)을 붙이다 말다 하면 약한분(게으른 중생)은 꺼지고 말 듯이 용맹전진하여 정법을 수지하고 쉼 없이 정진하며 차라리 혼자서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하지 말라의 법구경의 말씀을 새기면서 말소리, 걸음걸이, 행동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고치고 실천하고 바꾸어가려 수행합니다.

**▶ 정사, 전수님께서는 사원에서 교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시고 교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생교화를 하시면서 남다른 방편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생교화라는 거창한 어휘는 저에게는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본인 자신의 중생제도를 목표로 정진합니다. 왜냐구요? 저를 보니 보살이 보이고 보살속에 제가 있고 보살은 저의 큰 스승이라 보살님의 허물이 저의 허물이요 겸손과 하심을 배우며 같이 수행하며 탐.진.치는 버리고 애착도(사랑)버리고 매듭은 풀고(참회) 법계 있음을 굳게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 정진하고 실천하며 그런 모습이나 행동이 자연히 보살님께 젖어들기를 바라며 나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딛듯 매사에 신중하려 합니다.

**▶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간에 아집과 집착에 얽매여 살고 있고 나와 너를 살리는 자세가 아닌 서로 죽이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며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에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 분별심 때문입니다.

나누고 쪼개고 공업인연을 지어 조그마한 나라에 같은 하늘을 공유하며 숨쉬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못났는가? 잘난이 못난이 더불어 사는곳이 사바세계인 것을 !

내가 있으니 너가 있고 위가 있으니 아래가 있고 선생이 있으니 제자가 있고 우리 이 있으니 제자가 있고 우리

총지종 전승단과 교도들은 동업인연으로 한 마음 한뜻으로 한교를 믿고 수행하면서 너와 나를 네교도 내교도 우리스승 너희스승 분별치 말고 스승 따라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 둥지를 짓지 말며 보살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의 주인은 바로 보살님 자신임을 명심하시고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를 믿고 용맹정진 합시다

**▶ 사원에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화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쉬운일이라면 누구나 할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전생으로 지어온 선.악의 고가 많은지 탐·진·치가 많아서인지 고통의 끈(집착)을 놓치 못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보살님들을 볼때 마음 한구석이 애잔합니다.

밤새도록 수십채의 기와집을 짓고 부수고 (번뇌) 수천개의 진수성찬을 차리고 수천다발의 돈을 흩뿌려 보아도 도무지 내것이라곤 없는데....!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가 꽃비 내리듯하고 진언이 좋다하여 염주알을 돌리면서 옴마니 반메훔을 용맹전진해도 이생이나 전생에서 지은 것이 없으니 지치고 힘들고 수고로움만 더할 뿐 법계에는 길.흉.화.복 선악존망의 엄연한 기관이 서 있을 뿐이지 흥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불교는 인과를 공부하는 곳 업은 닦고 (참회하고, 청소하고) 덕은 쌓고, 복은 짓는 것이니 보살님들 저희와 함께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 일선사원에서 교화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지종 교도보살님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먼저 스승님께 질문하며 어떠한 재난도 원인 없이 오는 것은 없으며 보살님 댁은 이런저런 인과가 있으니 서원을 성취하려거든 시간 빼지 말고 (계행)정진을 몇 시간하고 (정진) 되도록이면 말씀을 삼가시고(망어) 49일 동안 정진하십시오.

서원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이어서 다시 49일을 더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수순하여 정진하는 보살님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 마지막으로 총지종 교도 및 수인사 교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지종 보살님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총지종에 입교한 것이 감사하고 원정종조님과 정각원 스승님을 만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 행복하고 여러 스승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보살님들을 만나 뵈서 행복하고 절에서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법당에 앉아서 조용히 나를 관조할 수 있음도 행복하고 어질고 선한 가족 있음도 행복하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인과응보와 윤회를 믿기에 가는 날을 준비할 수 있음을 한없이 행복하고 총지종 보살님들 부디 행복하십시오

인생은 뻥 뚫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긴 여행길을 가다가 만나는 바위도 비바람도 진흙탕 길도 비켜 갈수 없는 삶의 여정이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묵묵히 정진합시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슬픔 뒤에는 기쁨이 불행 뒤에는 행복이 비바람과 폭풍이 지난 뒤의 태양은 찬란하듯 진리를 믿고 용맹정진 합시다.

시련의 끝에 만난 법신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밝고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큰절 큰스님 법문 잘하는 곳 찾아 떠돌지 마시고 총지종 서원당에서 믿고, 실천해서 다같이 행복 합시다. 그것이 바로 성불인 것을

옴마니 반메훔